

김안락기념관 소식지 제3호

恩光行世

은 광 연 세

12

2018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매표 마감, 오후 5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무료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간선 315

지선 426, 431, 432, 465, 466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



제호설명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儼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搢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은광연세(恩光衍世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 때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준 편액 문구입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제호입니다.

표지설명

오래 전 이 땅의 주인에서 소수민족이 된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학교 아이들과 (사)김만덕기념사업회 방문봉사단이 기념탑에 섰다. “갖고 싶었던 자전거와 학용품도 좋았지만 저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려요.” 라고 교사와 학생들은 이야기했다.

김만덕은 기근에 피폐한 제주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한 톨의 곡식을 나누며 끝까지 가족과 이웃 곁을 지켰다.

발행 (사)김만덕기념사업회

발행인 상임대표 고 두 심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 제3호

From The Editor



‘물결 헤쳐 바람 타고 먼 곳을 찾는 뜻이 무엇일까?’ 조정 박제가는 김만덕이 대장부 이상의 큰 뜻을 품었다고만 하고 그 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 호 커비스토리에서는 제주도 구휼에 관련된 기록을 살폈다. 3년의 연이은 대기근으로 제주도민이 굶어 죽어갈 때 나주, 무안, 영광 등 전라도 연안의 백성들이 지계에 곡식을 지고 산을 넘어 뚝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실었고, 선원들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다. 배를 늦게 띄운 침몰 책임자들을 해변에서 곤장을 쳐서 죽은 이들 가족의 한을 풀어주었다.

육지의 창고도 비어버린 절망적인 시기에서 발휘한 정조의 리더십, 스스로 나서 생명을 살린 만덕의 능력과 의로움, 정조와의 만남과 금강산을 돌아 제주로 귀환까지의 생생한 기록은 오늘날에도 교훈이 되고 감동을 준다. 사라봉 묘탑에서 만덕제를 올리고, 백록담에서 시작하여 화북포에서 배에 올라 해남 관두포에 상륙하여 한양, 금강산에 이르는 길을 조망하였다. 제주문화답사에서는 제주전통가옥의 특성에 대한 논문을 수록했다.

만덕섬팡에서는 제주 콜센터 명칭에 ‘만덕’을 넣은 조례를 발의한 강성민 의원을 만났다.

김만덕 이야기를 읽은 한 초등학생은 그림을 그렸다.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모두 잃어 잘 곳도 없었는데 (부자도 많았을 텐데) 천한 신분이라는 기녀 할머니가 만덕을 거두어 주어 고마운 분이다’라는 대목이 여운을 남긴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사진작가 알렉스 김이 찍은 격변기를 살아온 어르신 1,028명의 사진을 전해드렸다. 제주의 근현대사를 얼굴에 새긴 어르신들의 사진과 작가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3년간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때론 함께 울어주는 분들과 만났다. 가난을 겪었기에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배려하는 제주사람들의 나눔이 만덕과 함께 빛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기억한다.

새해에는 ‘제주제5로’의 옛길을 찾아서 제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만덕길을 따라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길 속에서 김만덕의 큰 뜻을 찾아보자.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짧은 서문이 있다]

초정 박제가

을묘년(1795)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여인 만덕이 곡식을 내서 백성을 구휼하였다. 소원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산이 강원도 회양부에 있어 제주목과 거리가 수륙으로 이천여 리나 되는데다, 섬에 사는 여자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관례가 있었다. 임금께서 그 뜻을 기특히 여기시어 여의(女醫)로 불러 약원(藥院)에 예속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주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성인께서 아랫사람의 뜻을 굽어살피시어 평범한 아낙조차 있을 곳을 얻게 한 것은 옛날에도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만덕이 이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아치들 사이에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아아! 만덕이 남자였더라면 임시로 3품의 관복을 입고 만호(萬戶)의 인권을 차게 하는 데 그쳤을 뿐이리니, 어찌 능히 세상에 전해졌을 것인가? 다만 눈썹 먹을 내던지고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연지분을 내치고서 푸른 바다를 건너, 서울의 궁궐에 조회하고 이름난 산을 찾았으니, 세상에 들건 나건 넉넉히 풍치가 있음을 귀하게 여길 만하다. 만덕은 겹눈동자를 지녔으니, 대개 특이한 상을 지녔다. 어찌 전생에 부처의 마음과 신선의 풍골이 깃들지 아니했는가? 그녀가 돌아가므로 시를 지어서 드린다.

送萬德政濟州詩 有小序

歲乙卯耽羅大饑。女人萬德捐粟賑民。間奚願。願見金剛山。山在江原道淮陽府。距本牧水陸二千餘里。故事島中女毋過海。上奇其志。以女醫召隸藥院。給驛遞以成其志。聖人之體下。匹婦之獲所。古無與比。萬德由此名動搢紳間。嗟乎。使萬德男子乎。即不過假三品服佩萬戶印授而止耳。惡能必傳於世哉。惟其掃蛾眉而活千命。抗脂粉而涉滄溟。朝京闕訪名山。入世出世。綽有風致者。爲可貴耳。萬德目重瞳。蓋異相也。豈佛心仙骨。有夙世之種者歟。於其改贈之以詩。

大寰海外頭不出。五嶽誰能昏嫁畢。毛羅爲島界樽桑。星主千牽僅貢橘。橘林深處女人身。意氣南極無饑民。爵之不可問所願。願得萬二千峰看。翠袖雲鬟一帆峭。弧南所照回天笑。催乘駟駒向煙霞。佛日仙風環佩耀。眞覺新羅一念通。異相巾幗符重瞳。從知破浪乘風志。不是桑弧蓬矢中。

저자 박제가(朴齊家)는 1750~1805. 조선 후기 실학자로 특히 연암 박지원과 함께 18세기 북학파의 거장이다. 본관은 밀양. 자는 차수·재선·수기, 호는 초정(楚亭)·정유·위향도인이다. 증지 박평(朴坪)의 서자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778년 사문사 채제공(蔡濟恭)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했는데, 중국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본받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통상무역을 통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실현할 것을 역설하였다. 수많은 중국과 베트남의 관리와도 교류를 하였다. 정조의 서얼허통(庶孽許通) 정책에 따라 이덕무·유득공·서이수 등과 함께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다. 기상은 컸고 성격은 굳고 곧았다. 시문은 침신(尖新)하며 활달했고, 필세(筆勢)는 날카롭고 굳세었다. 학문은 개혁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는데, 다산 정약옹과 추사 김정희에게 영향을 주었다. 저서로는 『정유집』, 『북학의』, 『정유시고』, 『명농초고』 등이 있다. 만덕과 박제가는 특실한 배를 건조하고 해상 무역을 허용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정조 사후 신유박해를 주동한 대비 김씨와 노론의 영수 심한지를 비방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으며, 1805년 55세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바다 밖 큰 세계에 머리조차 못 내미니
 자식 혼사 마친대도 오악 구경 뉘 하리오.
 탐라는 섬으로서 부상(搏桑)과 경계 되니
 도주는 천 년토록 조공으로 굴 바쳤네.
 굴나무 숲 깊은 곳 여인네의 몸이건만
 의기로써 남극에서 주린 백성 없게 했지.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었더니
 금강산 일만 이천 봉 보기를 원했다네.
 푸른 소매 귀밑머리 돛단배에 올라서는
 남극성 비추는 곳 하늘 보며 웃었겠지.
 서둘러 말 갈아타 금강산을 향해 가니
 불일폭포 신선 풍골 패옥이 반짝인다.
 신라와 일념으로 통합을 깨달으니
 귀한 관상 여인네는 겹눈동자 부합했네.
 물결 헤쳐 바람 타고 먼 곳을 찾는 뜻이
 대장부만 누릴 일이 아님을 알겠구나.

탐라 원문은 탁라(毛羅). 탐라의 초기 국호.

부상 부상(搏桑)은 중국 전설에서 동방에 불로불사의 선인이 사는 유토피아(봉래산)가 있고 동시에 태양이 매일 아침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수인 부상수(扶桑樹)가 있다고 믿었다.

도주 원문은 성주(星州). 신라, 고려, 조선 초엽까지 탐라의 우두머리를 일컫던 말이다.

남극성 비추는 곳 원문은 호남소조(弧南所照). 호남(弧南)은 남극성이고, 남극성이 비추는 곳은 곧 제주를 가리킨다.

대장부 원문은 상호봉시(桑弧蓬矢). 뿔나무 활과 쏙 화살이다. 옛날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이 활 여섯 개로 여섯 개의 쏙 화살을 천지 사방에 쏘았다.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참고문헌 박제가, 《정유각집》, 시집 4권. 정민 이승수 박수밀 외 역. 돌베개, 2010



차례 CONTENTS

2018. 12 제3호

From The Editor | 1

서시 | 2

초정 박제가 - 만덕 전승시

차례 | 4

발간사 | 6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

축사 | 7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만덕제 | 9

제39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정조의 제주 구휼 | 15

어서 배를 띄워 제주백성들을 살려라

곡식 실은 전운선 5척 파손

김만덕 곡식내어 구휼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

정조와 백성들을 감동시킨 김만덕

번암 채제공과 ‘만덕전’

김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 26

김만덕은 왜 육지로 길을 나섰나?

제주제5로 도전과 나눔의 길

김만덕, 167년만에 ‘출도금지’ 빚장 풀다

섬 너머 큰 바다 건너는 제주해로

제주문화 답사 | 35

제주의 전통가옥

만덕심판 | 42

<제주 120만덕콜센터> 조례를 발의한 강성민 의원

차례 CONTENTS

2018. 12 제3호

자녀와 함께 읽는 김만덕스토리 | 44

은광연세

위미초등학교 학생들의 독후감

교육 프로그램 및 주요행사 | 63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

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 나눔교실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신(新) 김만덕 객주

김만덕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탐험대

만덕할머니, 나눔이 뭐예요?

만덕할머니와 나눔항아리

만덕봉사단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

김만덕기념관 개관 3주년 행사

개관 3주년 기획전 <이정미 돌·바람·물>

제2회 김만덕 주간 - 나눔 큰잔치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제2회 김만덕 주간

시민 참여 전시회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 방문

양종훈의 포토옴니버스

빛, 여행 그리고 상상전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전

선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사회공헌활동이 세상을 바꾼다

2018 김만덕 나눔 콘서트

임피제 신부 한림이시돌에 영면

후원·기탁 | 109

김만덕 사랑의 쌀을 후원하신 분

김만덕 사랑의 쌀 배부처 및 수량



발 간 사



설레는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뜻을 다짐하며 시작한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웠던 일, 보람된 일 등 다양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갑니다.

저희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도 김만덕기념관과 함께 올 한해 더 가까이 더 친숙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양종훈의 포토옵니버스’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봉사단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활동, 공모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김만덕의 정신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제39회 만덕제봉행과 제2회 김만덕주간을 운영하면서 제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김만덕의 이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으로 베트남 만덕학교인 칸호아제주초등학교, 번푸만덕중학교를 방문하여 화장실 신축 및 건물 도색 공사를 지원했고, 장학금과 학용품, 티셔츠 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특별히 준비한 사업은 장수효도사진사업입니다. 유명 사진작가인 알렉스 킴과 함께 제주도내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를 선물하였습니다. 천여 명의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여전히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제2의 김만덕이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주도-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이어나가고 널리 알리고자 했던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을 이번 소식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소식지로나마 대신 전해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사)김만덕기념사업회와 김만덕기념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고 두 심

축 사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恩光衍世(은광연세)』 제3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은혜의 빛이 세상에 퍼진다’는 소식지의 제목처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사업가이자 숭고한 봉사자인 김만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김만덕은 조선 정조 때 제주에 큰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들여 옥지로부터 쌀을 구입해 도민들을 살린 의인(義人)입니다.

김만덕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인류애 실천이 절실한 요즘, 시대를 개척한 김만덕의 발자취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제주의 귀한 가치입니다. 제주도정은 의인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만덕제를 올리고, 김만덕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을 연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선양하면서 이웃과 나누고,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행복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건강한 제주를 일구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귀한 실천인 나눔은 이웃에 희망과 꿈을 불어넣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일입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확산하는 통로가 되고, 제주를 나눔봉사의 성지로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恩光衍世』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은혜의 **빛** 온 세상에 퍼지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전 세계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인 김만덕 기념관을 운영하며, 의로움과 베품의 상징인 '김만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 전시>, <나눔사업>, <김만덕 정신 선양>,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



- 김만덕 관련 유물 발굴, 수집, 보존, 학술 자료 발간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나눔 체험 전시장 운영

기획 전시



-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기획 전시
- 만덕문화대상, 문화강좌 시민참여 전시, 나눔전시회

사랑의 쌀 나눔



-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 접수
- 제주도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 쌀 나눔

교육 프로그램



- 유치원, 초중고,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나눔 프로그램
- 찾아가는 기념관: 시외 초등학교, 경로당 방문 교육

김만덕주간



- 사라봉에서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 나눔큰잔치. 1주일 간 김만덕 주간 운영

나눔공모전



-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실시

학술세미나



- 김만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실시

만덕 봉사단



-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문화공연



- 유명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



만덕제 김만덕상 시상식

제206주기 만덕제

2018년 10월 21일(일) 제주의 대표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39회 만덕제가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봉행되었다.

만덕제는 여성 제관들에 의해 봉행되며 김만덕의 '나눔과 베풀'의 정신을 기리며 전통 유교 방식으로 제를 올리는데 올해는 김순익, 진춘자 만덕제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초헌관 변명호씨, 아헌관 강명순씨, 종헌관 고정신씨가 제관을 맡아 봉행되었다.

길 트기 풍물로 시작하여 헌화 및 분향, 제례 봉행, 분향, 김만덕 타령 합창으로 만덕제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내외와 (사)김만덕 기념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 김만덕의 후손인 김균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김해 김씨 종친회, 김만덕상수상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도민들이 참석하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만덕제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하였다.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은 KCTV를 통해 당일 녹화 방영하여 도민들과 함께 김만덕의 뜻을 기렸다.





제39회 김만덕상 시상식

봉사부문 강영희(71) 경제인부문 좌옥화(84)

올해의 김만덕상 수상자의 영예는 봉사부문 강영희 씨(71), 경제인 부문 좌옥화 씨(84)가 차지하였다.

봉사부문 수상자인 강영희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이다. 거제도에 정착하여 불우이웃을 돌보며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20년간 서부경남제주도민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 및 현지 여성의 정착을 도와 거제도 인물 30인, 경남인물 100인에 선정되었다.

경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좌옥화씨는 서귀포 서흥동 출신이다. 어릴 적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며 재일한국인들과 고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또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제주장학재단 창립금 출연,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서귀포성당에 장학금기탁 등을 지원해왔다. 김만덕상 수상자는 1980년부터 올해까지 47명(봉사부문 39명, 경제인 부문 8명)이다.





의인상 故 김선웅(19. 제주한라대학교)

특별상 김만덕 의인상은 고 김선웅 씨(19. 제주한라대학교)가 수상하였다. 김선웅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가족들은 막내가 장기기증 약속한 것을 존중하여 7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로부터 늦둥이 막내의 의인상을 대신 받은 부친 김형보 씨는 '첫 김만덕의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선웅이를 아름다운 청년으로 오래도록 기억해주길' 바랐다.





여성 제관들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만덕제를 거행하였고, 한소리합창단은 김만덕에 대한 존경을 담은 김만덕 타령으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식을 마치고 고두심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오래도록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선웅이처럼 짧지만 큰 사

랑을 주기도 합니다. 선웅이의 뜻이 그랬지만 가족으로서 아들과 동생의 장기를 내주는 결정은 너무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며 잠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날 김만덕묘탑에서는 추모와 축하의 열기로 가득한 여 큰 여운을 남겼다.



정조의 제주도 구휼(救恤)

정조는 재위 24년간 조선팔도의 어느 곳보다 관심을 갖고 제주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구휼미를 내리고 환곡 체납을 탕감하고 공물을 중지시켜 주었다. 제주도가 연이은 자연재해로 극심한 흉년을 겪은 시기의 기록을 알아본다.



어서 배를 띄워 제주백성들을 살려라

1794년(정조 18) 9월 16일 저녁, 전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올린 장계(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읽은 정조는 밤잠을 설치고 17일 어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제주도에 8월 27일과 28일 강한 폭풍과 바닷물이 발로 날아들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피해를 봐 곡식 2만여 섬을 급히 보내주지 않으면 제주 백성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장계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병모(우의정)와 채제공(영종추부사)은 육지의 남해안 연안 지역도 피해를 받았고 곡물을 운송하는데 어려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만 섬만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육지의 백성은 형편이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바다에 갇힌 제주백성은 배로 보내는 곡식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2만 섬을 각박하게 절반으로 줄일 수 없고 돈으로 보내더라도 섬에서 곡식으로 바꿀 수 없으니 대궐의 자금을 더해서 구제 물품을 보내라.”고 하였다. 또 관청과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공물을 내년 보리 수확 때까지 면제해 주었다. 백성의 생명선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늘에 제를 올리고 배를 띄우라고 명을 내렸다.

1794년(정조 18) 9월 17일 (정조실록 39권 참조)



복원된 조선 곡물수송선 '조운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주구휼에 소극적인 대신들

“제주백성은 곡식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우의정 이병모



영중추부사 체제공



좌의정 유언호



영의정 홍낙성

이병모(우의정)와 체제공(영중추부사)

“육지의 남해안 연안 지역도 피해를 받아 곡물을 운송하는데 어렵고 전례가 없습니다.”

정조

“육지의 백성은 형편이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바다에 갇힌 제주백성은 배로 보내는 곡식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2만 섬을 각박하게 절반으로 줄일 수 없고 돈으로 보내더라도 섬에서 곡식으로 바꿀 수 없으니 대궐의 자금을 더해서 구제 물품을 보내라.”

제주도 전체가 흉년과 영양실조에 따른 전염병으로 수많은 도민이 절체절명의 시기가 3년이나 이어졌다. 전라도 감사와 제주목 사는 장계로 당시의 참혹함을 정조에게 올렸다.

적극적인 대처로 제주백성을 살리려는 정조와 달리 이병모, 체제공, 유언호, 홍낙성 등 최고위 관리들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대처와 변명으로 일관된 내용이 정조실록, 일성록, 원행일묘정리의께에 속기록과 같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호남 위유사 서영보의 별단(감사보고)

1794년 (정조 18) 12월 25일 서영보는 전라도 연안 강진, 진도, 해남, 흥양 등 지역의 사정을 보고하였다. 주로 나라에 바치는 곡물에 관련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제주도로 많은 곡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건의사항도 담고 있어 그에 대한 사항을 추려본다.

제주도로 가는 수령과 사신은 강진, 해남, 영암에서 돌아가며 담당하지만 영암의 고달도에서 바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진창에 6방을 설치하고 접대하여 부담이 크다. 고달도와 함께 강진 남당포, 해남 관두포가 모두 제주로 가는 길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니 매년 순번을 정하면 민폐를 줄일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제주로 곡식을 보낼 때 바다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는 소안도인데 이진에서 소안도까지 1백여 리나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배를 출항하는 것도 미안하니 고달도 해변에서 제를 행하길 바랐다. 그리고 창고에 실제 곡식은 없으면서 빈 장부만 있는 고질적인 병폐도 알렸다.

제주도에 고구마 경작을 장려

고구마를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에 심어 장려하였으나 영광읍의 가렴주구로 관리가 과도한 세를 요구하여 아예 심지 않게 되어 희귀해졌다. 제주도의 3읍은 토질이 대마도와 비슷하여 잘 심으면 흉년에 구황작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영광읍의 토색질하는 폐단을 엄히 다스려 개혁하고 많이 심고 수확한 자는 연역을 감해주어 권면해주길 청했다. 이에 정조는 모두 허락해 주었다. 1794년(정조 18) 12월 25일 (정조실록 41권)

제주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실은 전운선 5척이 파선된 일을 치계하다

“밤에 5척의 배가 파손되고 많은 곡식이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익사한 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어라. 살아남은 자들은 신역을 면제하라. 원인은 바람 탓이 아니다. 게으름을 피워 배를 늦게 보낸 자를 해변가에서 곤장으로 다스려 유족의 원통함을 풀어줘라.” “날알 하나, 기구 하나라도 섬 백성들에게는 천금과 같다. 다시 보내라.”



전라감사 이서구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옮겨 전운(轉運)해 주는 곡식을 실은 배 5척(隻)이 파선된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탐라(耽羅)에 두 번째로 전운해 주는 곡물 1만 1천 석(石)이 또 일제히 그쪽 언덕에 닿게 되어서 먹여주기를 원하는 섬 백성들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겼었는데, 밤에 장계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가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包)에 달하는 곡식이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시 결론 부분의 말을 보다가 감관(監官) 1명이 익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더욱더 놀랍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1백 명에 가까운 사격(沙格)이 개별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은 크나큰 다행이다. 익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백(道伯)을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보살펴 주는 동시에 그 족속을 뽑아 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격들 가운데 신역(身役)을 진자가 있거든 일체 덜어 주도록 분부하라.

뒤떨어진 5척의 배가 침몰한 원인을 어찌 바람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영운(領運)하는 차원(差員)이 부적격자였다면 전운하기 이전에 벌써 고려했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그 책임은 도백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낱으로 차원의 죄를 청하겠는가. 당해(當該) 도신(道臣)을 먼저 월봉(越俸)토록 하고, 당해 차원에 대해서는 병사(兵使)로 하여금 해변가에 크게 위의(威儀)를 펼쳐 놓은 다음 그를 잡아들여 엄하게 곤장을 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일깨우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그저 세 번째 조운해 주는 곡물이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를 모르겠기에 묘당으로 하여금 막 관문(關文)을 띄워 목사에게 물어보

록 하였는데, 그 목사가 완백(完伯)*에게 먼저 보고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번 에 특별히 내려보내는 곡물의 양이 목사가 더 청한 숫자보다 많은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뽕아널 즙에 균등하게 하지 못한 나머지 혹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걱정은 없겠는가.

세 번째 조운해 주는 1만 포의 곡식이 그 해안에 닿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는데, 이를 어찌 처음 조운할 때나 두 번째 조운할 때의 심경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향과 축문을 보내 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경건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자주 하면 번독(煩瀆)스럽게 되기가 쉽고 번독스럽게 되면 소홀하게 대하기 십상이니, 지금은 내 마음속에 돌이켜 구함으로써 나의 심향(心香)이 멀리까지 이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전교를 가지고 별도로 도백과 목사에게 관문을 띄워 엄히 신칙토록 하라.

날알 하나 기구 하나라도 섬 백성들에게는 천금(千金)과 맞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만약 9백 포의 곡식을 못 쓰게 만들었다 하여 본 목사가 요청한 수량 이외의 다른 곡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조정의 본의이겠는가. 완백으로 하여금 이 수량에 맞춰 차례로 들여보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섬의 사정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진도(珍島)의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감해주도록 하였다마는, 이런 춘궁기(春窮期)를 당하여 형세상 독촉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추수 때까지 연기해 주어 조금이라도 백성의 힘을 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795년(정조 19)윤2월 3일 (정조실록 42권)

*완백(完伯) : 전라 감사.

○濟州牧使李禹鉉以移轉穀所載船五隻致敗事馳啓, 敎曰: “耽羅再運一萬一千石穀物之又能齊泊彼岸, 庶慰島氓望哺之急, 夜見狀本, 自不覺灑然。然以五隻幾百包之臭載, 又不覺瞠然, 更看結語, 監官一名之渰死, 尤爲驚惻, 惟以近百名沙格之箇箇生還爲大幸。淪水人嚴飭道伯, 各別慰恤其家屬, 拔薦其族屬, 萬死生還沙格等之如有身役者, 一並除減事分付。落後五隻之沈沒, 豈誘之風力乎? 領運差員之不得其人, 未運時固已慮之。然則其罪道伯當當之, 以何顏請罪差員乎? 當該道臣, 爲先越俸, 當該差員, 令兵使大張威儀於海邊, 拿入嚴棍, 一以慰冤, 一以警情事分付。再昨以三運穀物之未知其有裕與不足, 纔令廟堂關問該牧矣。際見該牧先報完伯之說, 今則始可降心, 況今番特下之數, 過於該牧之加請之數者乎? 然抄拔之際, 能免不均, 而或至於填壑之患乎? 三運萬包未泊之前, 予所一念懸懸, 豈比於初運再運之時乎? 非不欲更迭香祝, 虔禱利涉, 而數近於瀆, 瀆則易怠。今方反求之方寸, 以祈心香之遠格, 令廟堂將此傳教, 別關嚴飭於道伯牧倅, 雖一粒一機之微, 在島民可敵千金, 則若以九百包穀之臭載本牧, 所請之數外, 不爲代送, 豈朝家本意? 令完伯準此數, 鱗次入送。島則一也, 珍島大同, 雖已減斗, 當此春窮, 勢難督捧, 限秋成停退, 以紓一分民力。”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살린다 김만덕은 정조가 이끈 곡식 수레를 밀어 수많은 백성을 살린다

‘굶주림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 정조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하여 다시 곡물을 모아 운송할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참혹한 시련이 가중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만덕은 모은 재산을 내어 육지에서 곡물을 배로 실어 와서 스스로 제주백성을 도왔다.



비변사 박제가



바닥 드러낸 육지의 곡식 창고

1796년(정조 20) 4월 3일 전라도 관찰사 서정수(徐鼎修)의 상소문에 따르면 3년간 계속된 기근으로 제주도에 보낸 곡물이 5만 3천 5백 석에 달하고, 해운 과정에서 온갖 폐단이 발생하고 해변의 창고도 축적된 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배가 침몰하여 유실된 곡식에 대한 보충방안과 배 운송 비용 등을 공내 물자로 지급할 정도로 제주도 구휼에 한계에 달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공주에 설치한 나리포의 10여 섬에 이르는 곡식으로도 전체가 많은 혜택을 입었으나 제주의 기근이 계속되어 구제 물자로 삼기 위해 임피로 옮기고 뒤에 나주로 옮겼지만 이제 남은 곡식이 고갈되었다. 영동지역은 물론 삼남과 같이 곡물이 풍부한 곳의 사정도 좋지 못했다.

제주의 대기근은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어렵게 마련한 구휼미를 실은 배 5척이 난파되어 봄이 오기까지 많은 이가 굶주릴 처지가 되었다. 만덕은 육지로 사람을 보내 곡식을 사서 배로 실어와 수많은 제주백성을 살렸다.

역사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제주가 고향인 육지 정착민, 해녀들에게도 기근에 처한 가족, 친정 식구를 위해 끼니를 아껴 마련한 식량을 봇짐에 싣아 제주로 떠나는 배에 실어 보냈을 것이다.

오늘날보다 통신과 교통이 열악했지만 배 침몰 소식이 잠자는 임금을 깨워 전달되었다. 정조의 신속한 대처가 돋보인다.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책임이 있는 관리를 엄히 문책하고 목숨을 잃은 관리와 백성에 대한 위로와 보상, 추가 구휼 지시를 하였다.

제주 재해로 인해 시장의 곡물 가격이 오르고 도매상의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으며, 창고에 곡식이 비어 빈 장부만 남은 고질적인 문제, 해상운송의 낙후성 등이 도출되었다. 이후 정조는 신해통공으로 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화성축조에서 절약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정리곡을 각 지역의 창고에 보관하고 실질적인 지출과 대여, 잔고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정 박제가에게 북학의를 집필하도록 하여 농업을 장려하였다.

한양에서 김만덕과 교류한 박제가는 ‘현재 국가의 큰 폐단은 가난인데 구제할 방법은 중국과 통상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농상공을 장려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특히 물에 익숙하고 장사에 능한 섬의 백성을 발탁해서 큰 배를 만들어 돈과 곡식을 싣고 오가는 시장으로 보낼 것을 건의하였다.



정조 화성원행 비용에서 1만냥을 제주도 진휼

정조는 화성원행을 주관하는 정리소를 설치하고 예산 103,061냥을 배정했다. 원행에 사용된 경비는 63,061냥, 화성 설비 1만 냥이고 그중에서 1만 냥을 제주도 진휼에 사용하고, 2만냥은 전국에 분배하여 작물로 바꿔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이라고 하고 매년 환곡의 출납과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실제 수량을 보고하며 굶주린 백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은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 줄 곡식은 적는데 기다리는 백성이 많아 제주도 전체가 목을 빼고 곡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제주도로 보낸 곡식이 1월 중순 바닥이 났고 이번엔 운반할 곡식 12,000섬은 다음 달이면 소진됩니다. 전라도 연해 지역도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이 많지만 우선 먼저 곡식을 무수하게 징발하여 보냈습니다. 또 전라도의 곡식을 보내게 한다면 섬이나 육지 모두 살아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추가 요청한 12,000섬 중에 2천 섬만 보낼 수 있으니 영남에서 보내길 바랍니다.”라는 전라감사 이서구의 장계 내용을 알렸다.

정조는 전라도 관찰사가 도내 사정이 절박한데도 곡식을 징발한 것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걸 엄하게 추고하라고 명했다.

좌의정 유언호와 우의정 채제공은 영남도 공색하고 곡식 운반에 오랜 기간이 걸려 실효가 없을 것이니 전라도에서 5천 석이라도 보낼 방도를 찾겠다고 했다.

이에 정조는 “지난겨울 제주도에 5,000섬을 특별 구휼했었다. 그리고 제주도 백성들이 위에 공상하는 것을 모두 정지시켰다. 이는 많은 제주도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제주도 백성들은 알 것이다. 그런데 현릉원 능행을 앞두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심이 작년 겨울보다도 배나 더하다. 이때 수령의 상소문으로 제주도 백성들의 처지가 매우 황급함을 알 수 있다. 전라도 관찰사가 이미 2,000석을 더 보냈다고 하더라도, 남쪽 지역을

근심하는 내 마음이 어찌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번 현릉원에 행차할 때 필요한 경비에서 1만 냥을 특별히 전라도 관찰사에게 주어서 곡식을 사면 10,000석은 될 것이니 꼭 5,000석으로 한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정리소의 비용을 제주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쓰면 제주도 백성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회갑을 맞이하신 경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전라도 관찰사에게 다음 달(윤달)안에 곡식을 제주도에 보내도록 하고 그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라.” 하였다. (을묘 2월 14일)



화성 신평루에서 쌀나눔. 이 시기에 만덕도 관덕정에서 곡식을 나눠주었다. 수원화성박물관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정조가 모친 혜경궁과 현릉원(사도세자 묘소)을 참배한 8일간의 기록으로 당시의 모든 행차와 행사 회의 등을 기록한 책자이다. 을묘년(1795)은 정조 재위 20주년이고 사도사제자와 혜경궁이 한갑이 되는 해였다. 신평루사미도는 화성지역주민에게 쌀을 주는 행사이고 제주에는 미리 쌀을 보냈다. 혜경궁 환갑연에 배가 등장하는 것은 제주와 연관이 깊다.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장계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정리소 전작곡 10,000섬이 차례대로 안전하게 운반되었다고 보고하자 정조는 “한마음으로 항상 걱정한 것은 지금 제주로 배가 왕래하는 것이다. 여러 장계가 일시에 보고한 것을 차례대로 열어보니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난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에 맞추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될 일인가? 마치 신령의 도움인 것 같아 더욱 더 기쁘게 생각한다. 더구나 25,000포의 곡물이 안전하게 운반되었으니, 이제는 분배를 잘하고 넉넉하게 구휼하여 제주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건지도록 하라.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으로 여김은 어찌 글로 표현하겠는가? 차후 일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은 오직 목사에게 매여 있으니 더욱 정성을 다하여 주린 자는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는 소생케 하여 제주도의 집집마다 배불리 먹는 기쁨이 있게 할 것을 정리의궤청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해당 목사에게 단단히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을묘 3월 초10일)

제주백성의 임금 은혜에 감사

‘해진 옷에 굶주린 모든 제주백성이 기뻐서 춤을 추고 집마다 서로 즐겨 위하여 배가 도착하기 전에 밥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배본 원칙을 정해 나누면 60,000명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최악한 사람은 살이 오르고 있으며 괴로워서 신음하는 자는 거의 다 다시 소생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요지의 제주목사의 장계가 도착했다. 제주백성들은 한결같이 “섬의 피곤한 백성이 나라에 무슨 공이 있다고 재앙이 있으면 구제하고, 곡식을 실은 배와 공납 면제는 거의 해를 거르는 때가 없으니, 우리를 진휼하기를 마치 자비한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니, 도민의 일모일발이 조정에서 품어주고 함양하는 덕택입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다.

제주목사 이우현은 장계에 제주도에 도착한 곡물 수송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조선에서 동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배를 가리지 않고 제주의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험한 바다를 건너 속속 제주의 포구에 도착했다.

일자	도착	선주(선장)	곡물
3월 17일	화북포	안성창	나주목 보리 920섬
		문천익	무안현 조 300섬
	화북포	송태광	보성군 조 400섬 6두
		박래억	보성군 조 399섬 9말
3월 19일	화북포	오설운	나주목 보리 420섬
		김삼운	나주목 보리 660섬
	조천포	김명복	홍덕현 조 250섬
		김태현	광양현 조 500섬
		강철명	낙안군 조 900섬
3월 20일	화북포	김이십동	좌수영 조 300섬 피모 200섬
	조천포	박수갑	영광군 피모 500섬
		박명손	낙안군 조 300섬
	조천진	차정구	함평현 피모 200섬
	화북포	염찬중	영광군 피모 500섬



혜경궁 홍씨 회갑연. 배는 제주구휼을 상징한다. 수원화성박물관

정조와 백성들을 감동시킨 김만덕

1796년 6월 6일 김만덕의 이름이 일성록에 등장한다. 모든 구휼을 마치고 선행을 내리려는데 '바랄 바가 없다'는 만덕에 대해 정조는 "만덕은 무엇을 구하기에 100포(包)에 가까운 많은 쌀을 마련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신분을 올려주든지 별도 보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 뒤에 거행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 같은 해 7월 28일 제주 목사 유사모는 만덕이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장계를 올렸다



1796년(정조 20) 6월 6일(일성록)

제주 목사 유사모는 진휼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민은 5만 1203구, 각 곡물은 3만 5523섬 13말 4되, 소금은 229섬 6말 3되에 달했다. 일단 3년간의 굶주림은 벗어 나고 제주의 남녀가 모두 등에 나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정조는 "날씨가 순조롭고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농사를 권면하여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진휼에 나선 전 순장 홍삼필, 제주 판관 조경일, 대정 현감 고한록, 정의 현감 홍상오 등에 대한 상을 내렸다.

드디어 만덕이 제주도민을 위해 스스로 구휼에 나선 사실이 정조에게도 올라가게 되었다. "만덕은 무엇을 구하기에 100포(包)에 가까운 많은 쌀을 마련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신분을 올려주든지 별도 보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 뒤에 거행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고 했다.

만덕은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신분을 높일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으며,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내보내 주었다고 제주 목사 유사모는 7월 28일 급히 장계하였다.



제주성과 하르방,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도 말, 국립중앙박물관

초계 문신들 ‘만덕전’을 짓다

정조는 만덕을 만난 3일 후 초계 문신에게 직접 시험을 보게 하고 채점하였다. 그중 4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만덕(萬德)”을 전제(傳題)로 삼았는데 서준보(徐俊輔, 1770-1856)의 만덕전이 삼상(三上)을 받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만덕 행수 의녀(行首醫女)가 되다

정조는 제주(濟州)의 여인 만덕(萬德)을 내의원의 차비 대령(差備待令)인 행수 의녀(行首醫女)로 충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沿路)에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많은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해 살렸는데 그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에게 소원을 물으니 상을 받는 것도, 신분을 높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가 보고 그 길에 금강산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였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출발할 수 없었다. 그가 비록 여자이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의 정의로운 협객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곧바로 내의원의 차비 대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고 수의(首醫)에게 소속시켜 각별히 돌봐 주도록 하라.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 (1796년 11월 25일자 정조실록과 일성록)

그리고 정조는 만덕을 만난 3일 후 초계 문신에게 직접 시험을 보게 하고 채점하였다. 그중 4월에 치렀어야 할 친시는 “만덕(萬德)”을 전제(傳題)로 삼았는데 서준보(徐俊輔, 1770-1856)의 만덕전이 삼상(三上)을 받아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정조가 만덕의 선행에 크게 기뻐하고 나눔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96년(정조 20) 11월 28일 (일성록)

김만덕은 어린 시절 양친을 모두 잃은 처참한 어린 시절을 강한 의지로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강인한 여인이다. 제주도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숭고한 삶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 제주 여인과 해녀, 국립중앙박물관



번암 채제공과 ‘만덕전’

정조의 친시를 계기로 당대 최고의 재상인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웃으며 그녀에게 주었다. 채제공 사후 편찬된 번암선생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만덕과 교류를 한 이가환, 박제가의 제주로 만덕을 보내며 지은 시가 전해지게 되었다. 추사 김정희는 박제가에게 수하하였으며 제주에 귀양와 만덕의 조카에게 ‘은광연세’ 편액을 주었다.



채제공(1720~1799)은 충청도 청양에서 지중추부사 채응일과 연안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평강이고 자는 백규, 호는 번암이다. 국포 강박과 약산 오광운에게 학문을 배웠고 1743년(영조 19) 문과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채제공의 첫 번째 부인은 오광운의 조카 딸인 동복오씨(1723~1751)이고 둘째 부인은 진사 권상원의 딸인 안동권씨(1734~1787)이다. 자식이 없어 채홍원을 양자로 들여 대를 이었다. 채제공 집안은 호주 채유후와 회암 채팽윤 등 문장가가 유명하다. 채제공은 이런 가풍 속에서 채팽윤의 문하에 있던 오광운과 강박에게 학문을 익히고 성호 이익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 영조대에 문장력으로 인정을 받아 왕의 글을 교정하고 책을 편찬하는 일을 맡았다. 영남 남민들과 시회를 자주 열어 당파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석복 신광수, 해좌 정범조, 여와 목만중, 간웅 이현경 등과 교류하였으며 순안 안정복, 금대 이가환, 다산 정약용 등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후계자로 천

주교 첫영세자인 이승훈과 다산 정약용을 아꼈다.

채제공은 스승 오광운을 아꼈던 영조의 배려로 청요직을 두루 거쳐 도승지에 임명되었다. 그때 사도세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영조로부터 ‘나의 순신이자 세손(정조)의 충신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정조의 왕세손시절 세손빈객으로 인연을 맺었고 정조가 즉위하자 수궁대장으로 최측근에 있었다. 당파를 초월한 탕평정국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수행하였다. 남인으로서의 숙종 이후 백여 년만에 우의정에 오르고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사도세자의 능을 현릉원으로 옮기고 용주사를 창건하여 정조의 숙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고 채제공을 초대 화성유수로 임명하였다. 화성성역의 총리대신으로서 축성작업을 지휘했다. 장용영 설치에도 역할을 하여 정조의 왕권 강화에 일조하였다.

정조는 채제공이 죽자 50여 년 동안 조정에서 벼슬하면서 굳은 기질을 간직한 대신이었다고 아쉬워하며 문숙이란 시호를 내렸다.

정조실록 채제공의 졸기에서는 “채제공은 글을 짓는 데는 소(疏)·차(劄)에 뛰어났고, 일을 만나서는 권모술수 쓰기를 좋아하였다. 외모는 거칠게 보였으나 속마음은 실상 비밀스럽고 기만적이었다. 매양 연석(筵席)에 올라서는 웃고 말하고 누구를 헐뜯거나 찬양하는 데 있어 교묘하게 상의 뜻을 엿보았고, 물러가서는 상의 총권(寵眷)을 빙자하여 은밀히 자기의 사적인 일을 성취시키곤 하였다.

상은 매양 그를 능란하게 부리면서 위로하여 돌보아주고 누차 널리 포용해주었다. 그런데 사술(邪術 천주교)이 널리 퍼짐에 미처서는, 상이 사교도들의 마음을 고쳐 귀화시킬 책임을 일체 그에게 위임했으나, 그는 사교에 연연하여 흐리멍덩한 태도로 은근히 사당(邪黨)을 비호하다가 끝내 하늘에 넘치는 큰 번이 있게 만들었으니,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정조 23년 1

월 18일, 정조실록) 당시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채제공의 평가에 인색한 내용은 그의 사후 집권세력인 외척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에 의해 20여 년간 아꼈던 인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길에 올랐다. 외척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던 세도정치가 등장했고 그로 인한 사회 부조리가 극에 달해 온갖 민란이 도미노처럼 일어났던 조선의 쇠락기로 이어졌다.

채제공 사후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복권되었다. 1824년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이 간행되고 류태좌에 의해 청양에 영당이 건립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5번지에 위치한다.

채제공은 정조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은 재상으로서 당쟁을 진정시켜 탕평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는 정조의 문에 부흥정책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萬德傳 만덕전

만덕은 성이 김이고, 탐라에 살고 있는 양가의 딸이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기녀에게 의탁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점점 자라자, 관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여 기녀로 일하였지만, 스스로를 그리 여기지 않았다.

나이 스무 살이 넘어서, 그의 사정을 관부에 읍소하니 관부에서 이를 딱하게 여겨 기녀 명부에서 삭제하고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만덕은 비록 집에 탐라 남자를 일꾼으로 두었지만, 남편을 맞지는 않았다. 그녀의 재능은 재화를 늘리는 일을 잘해서 물건 가격이 등락하는 때를 맞추어 사고팔기를 잘하여 수십 년에 이르자 자못 부자로 이름이 났다.

성상 19년 을묘년(1795년 정조 19년)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를 베개 삼아 베고 누워 죽었다. 임금께서 배에 곡식을 싣고 가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명했다. 거친 바닷길 팔백 리를 범선이 벼들의 복처럼 왕래했지만, 때에 맞게 이르지 못했다. 이때 만덕은 천금을 내어 육지에서 쌀을 사서, 여러 군현의 뱃사공들이 때에 맞게 이르렀다.

만덕은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실어 보냈다. 굶어 부환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관청의 뜰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관청에서는 그 처지의 완급을 조절하여 차등을 두어 이를 나누어 주었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며, 모두가 '우리를 살린 자는 만덕이다'라고 했다.

진흙이 끝나고,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아뢰었다. 임금께서 이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고 회답하시기를,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어렵거나 쉽거나를 묻지 말고 특별히 베풀어 주라'고 하였다.

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유시로써 분부하여 말하기를, '너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니 만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라는 바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를 바란다면, 서울에 올라가 임금이 계신 곳을 멀리서 우러러보고, 이어서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 봉우리를 본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대개 탐라의 여인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금하였으니,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다시 그녀의 소원을 아뢰니, 임금께서 그 소원을 따라 관에서 역마를 대주고 번갈아 음식을 제공하도록 명하였다.

만덕은 한 척의 범선을 타고 너른 구름바다를 건너서, 병진년(1796년 정조 20년) 가을 되어 서울에 들어왔다. 여러 차례 채상국을 뵈었고, 채상국은 그 일을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께서 선혜청에 명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도록 하였다.

머칠이 지나서, 명하여 내의원 의녀로 삼고, 의녀들의 반수로 대궐에 머물게 하였다. 만덕은 전례에 의거하여 대궐 안으로 나아가 왕과 왕비께 문안하였다. 각각 궁녀가 시중들었다.

임금님이 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개 여자로서 의기(義氣)를 내어 굶주린 사람 수천(千百) 명을 구제하였으니, 기특하구나.' 하시고 상을 내리심이 매우 두터웠다.

반년이 지나서 정사년(1797년 정조 21년) 늦은 봄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 중항봉의 기이한 경치를 두루 구경하고, 절의 불상을 마주하여 정례하고 공양을 드림에 그 정성을 다하였다. 대개 불교가 탐라국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만덕의 이때 나이가 오십팔 세였지만 처음으로 절과 불상을 보았다. 마침내 곧 안문령을 넘고 유점사를 경유하여 고성으로 내려가 삼일포에서 배를 띄우고 통천의 포석정에 오르니, 천하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 본 것이다. 그런 후에 다시 서울로 들어가 머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궁궐에 나아가 돌아갈 것을 고하니, 전궁께서 모두 전과 같이

상을 내리셨다.

이때 만덕의 이름이 서울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선비들이 만덕의 얼굴을 한 번 보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었다.

만덕은 떠날 때가 되어서 채상국에게 목이 메 말하기를, '이번 생에는 상공의 얼굴을 다시 뵈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눈물을 줄줄 흘렸다. 채상국이 말하기를, '진시황과 한무제는 모두 바다 건너 삼신산이 있다고 말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곧 영주이고, 금강산이 곧 봉래라고 하는데, 너는 탐라에서 나오 자라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떠먹었고, 지금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했으니, 삼신산 중에 그 둘을 돌아본 것이다. 천하의 많은 남자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이제 이별할 때가 되어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모습이 있으니 어찌 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이라 하고, 웃으며 그녀에게 주었다.

성상 이십일년 정사년 하지일,

번암 채상국이 일흔 여덟에 충간 의담헌(忠肝義膽軒)에서 쓰다.

樊巖先生集卷之五十五

萬德傳

萬德者。姓金。耽羅良家女也。幼失母無所歸依。托妓女爲生。稍長。官府籍萬德名妓案。萬德雖屈首妓於役。其自待不以妓也。年二十餘。以其情泣訴於官。官矜之除妓案。復歸之良。萬德雖家居乎庸奴。耽羅丈夫不迎夫。其才長於殖貨。能時物之貴賤。以廢以居。至數十年。頗以積著名。聖上十九年乙卯。耽羅大饑。民相枕死。上命船粟往哺。鯨海八百里。風檣來往如梭。猶有未及時者。

於是萬德捐千金買米。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浮黃者聞之。集官庭如雲。官劑其緩急。分與之有差。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咸以爲活我者萬德。賑訖。牧臣上其事于朝。上大奇之。回諭曰。萬德如有願。無問難與易。特施之。牧臣招萬德以上諭諭之曰。若有何願。萬德對曰。無所願。願一入京都。瞻望聖人在處。仍入金剛山。觀萬二千峯。死無恨矣。蓋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國法也。牧臣又以其願上。上命如其願。官給舖馬遞供饋。萬德一帆雲海萬頃。以丙辰秋入京師。一再見蔡相國。相國以其狀白。上命宣惠廳月給糧。居數日。命爲內醫院醫女。俾居諸醫女班首。萬德依例詣內閣門。問安殿宮。各以女侍。傳教曰。爾以一女子。出義氣救饑餓千百名。奇哉。賞賜甚厚。居半載。用丁巳暮春。入金剛山。歷探萬瀑。衆香奇勝。遇金佛輒頂禮。供養盡其誠。蓋佛法不入耽羅國。萬德時年五十八。始見有梵宇佛像也。卒乃踰鴈門嶺。由楡岾下高城。泛舟三日浦。登通川之叢石亭。以盡天下瑰觀。然後還入京。留若干日。將歸故國。詣內院告以歸。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萬德名滿王城。公卿大夫士無不願一見萬德面。萬德臨行。辭蔡相國哽咽曰。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仍潸然泣下。相國曰。秦皇漢武皆稱海外有三神山。世言我國之漢皐。卽所謂瀛洲。金剛卽所謂蓬萊。若生長耽羅登漢皐。剡白鹿潭水。今又踏遍金剛。三神之中。其二皆爲若所包攬。天下之億兆男子。有能是者否。今臨別。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於是敘其事。爲萬德傳。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樊巖蔡相國七十八。書于忠肝義膽軒。



우리나라 전도

1:2,700,000

(임베르스 정적 원주 도법)

지도 제작: 홍익지도

김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1796년 6월 6일 정조가 김만덕의 선행을 듣고 매우 놀라며 원하는 바를 듣고 무엇이든 들어 주라는 명을 내리고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7월 28일 제주목사 유사모는 아무런 바라는 바가 없고 오직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출도를 허가했다는 장계를 보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육지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만덕은 마침내 행수원녀가 되어 궁궐에 들어간 1796년 7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4개월에 걸쳐 국도를 종단해서 한양에 도착했다. 이듬해 봄 금강산을 돌아보고 한양을 거쳐 제주도로 돌아간 국도 대장정을 함께 떠나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은 왜 육지로 길을 나섰나?

제주에서 나서 58년을 살아온 김만덕은 평생 가장 지독한 3년간 큰 흉년을 겪으며 수많은 배가 곡식을 싣고 항구를 오가고 만덕도 모은 재산을 내어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당시 기야로 제주도 인구 15,000명이 감소했다. 땅이 흉년이면 바다도 씨가 마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도 들에서 보리가 익어가며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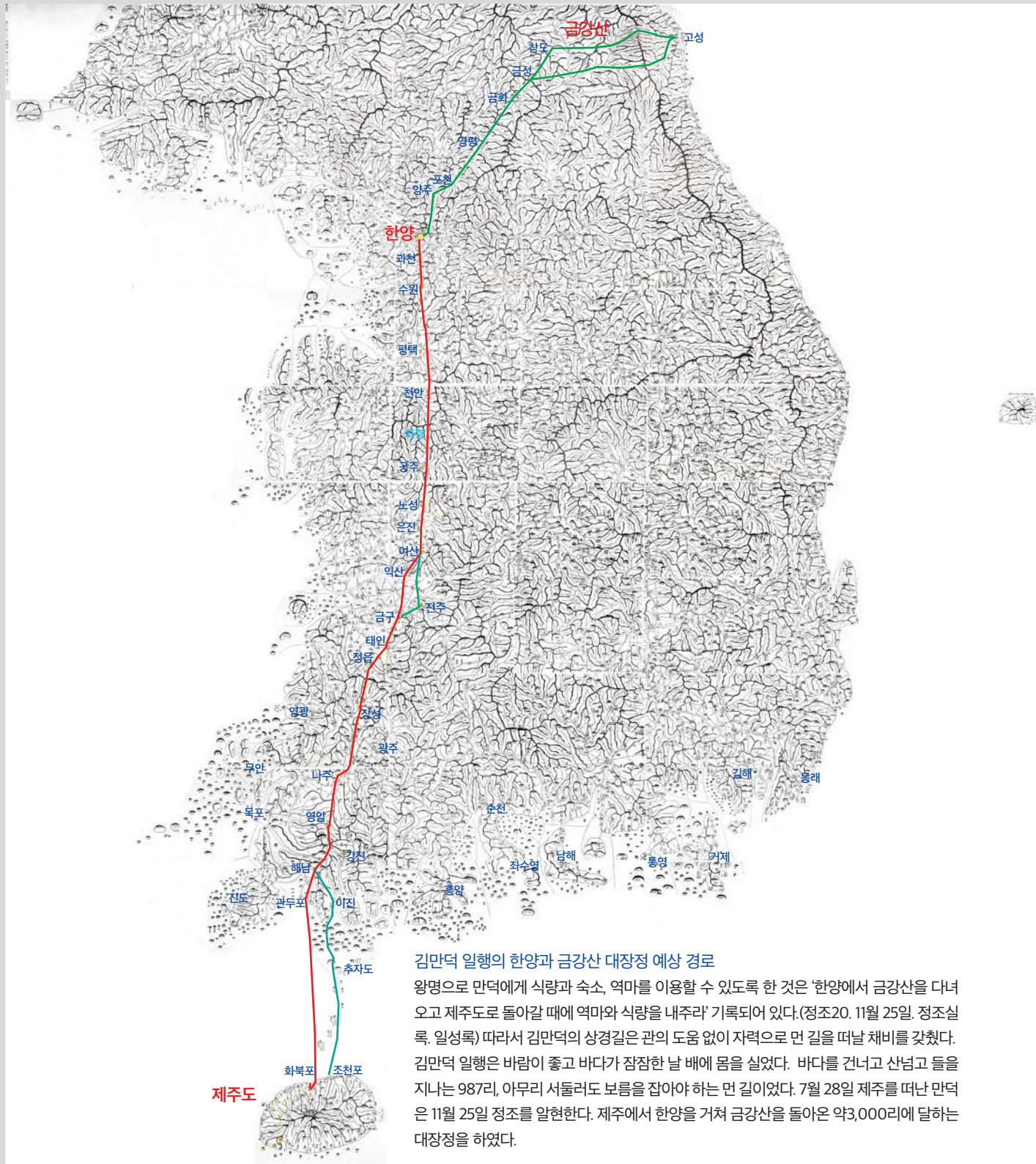
소녀 시절부터 언덕에 올라 북으로 향하는 돛단배에 올라 미지의 세계를 향한 꿈을 노년까지 간직하다가 훌쩍 길을 나선 것일까? 아니면 비축한 곡식 창고는 비어가고 배가 오길 기다리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남, 보성, 나주에서 만덕객주와 거래하던 상인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곡물과 물품을 넉넉하게 공급받기 위함일 수도 있다. 20세에 제주목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으로 인해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원을 회복했던 김만덕이기에 다시는 지난 3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안을 찾다가 제주의 백성을 위해 한양으로 길을 재촉했을 수도 있다.

한양에 도착해서 궁궐에 들어가 정조를 알현한 때에 금강산이 새로운 목적지로 나타난다. 제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기아와 병으로 가족을 잃은 한을 아직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제주의 실상을 왕실과 조정의 대신들에게 증언하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다. 과연 노년의 김만덕은 길이 험한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해 갔을까? 육지와 거래를 하면서 곡물이 상하지 않고 넓은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보다 큰 덕판배를 만들어 중국, 일본을 오가며 통상을 한다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제주도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 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강원도의 금강송 산지인 금강산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박제가 시의 시구와 행간을 통해서 대장부보다 더 큰 만덕의 깊은 뜻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



제주제5로(濟州第5路) 도전과 나눔의 길

조선시대에 한양과 팔도를 연결한 6대로는 의주 제1로, 경흥 제2로, 평해 제3로, 동래 제4로, 제주 제5로, 강화 제6로이다. 제주제5로는 경기 6읍, 충청도 44읍, 전라도 56읍 전부와 경상도 8읍을 포함하고 있는데, 114개 읍치 중 대로에는 18개, 방통지로에는 96개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경성(한양성)에서 과천, 수원, 소사점, 천안, 공주, 은진, 삼례역, 정읍, 장성, 나주, 영암, 해남, 관두량을 거쳐 제주에 이르는 987리(관두량에서 제주까지는 수로)가 대로이고, 여기에서 방통지로는 분기하여 주요 읍치로 연결된다.





행복한 도전의 길

관아를 찾아 목사에게 출도를 허락받은 김만덕은 제주를 떠나 기로 마음을 먹고 먼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노자, 선물할 제주특산물을 꾸리고 여벌 옷을 챙겨 동행해줄 상인과 일꾼 등이 함께 제주를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제주제5로는 일제강점기 신도로가 나고 철로가 놓이기 전까지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한 간선도로였다. 제주에서 한양까지 거리는 987리로 388km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첫 관문인 제주해협의 넓은 바다를 건너 10개의 크고 작은 강을 나룻배로 건너야 했다.

일부 구간은 소와 말의 힘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무거운 봇짐을 메고 높은 재를 넘고 평야를 가로질러 온전히 걸어야 했다.

1600년대 조선시대에 하멜 일행을 압송한 내용에 따르면 자세한 경로와 숙박지, 소요 시간이 나와 있으며 제주에서 한양을 가는 도중에 1명이 사망하고 14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있다.

58세의 김만덕에게도 상경은 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죽음을 삶으로 바꾸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행복한 도전과 자유의 길이였다.

가을에 탐스러운 과일이 달린 남도의 넉넉한 마을을 지나고 끝없이 펼쳐진 호남평야에 접어들면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매만지며 산지 가격을 알아보며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며 제주에서는 보지 못하고 지방마다 같은 듯 다른 풍광이 눈을 즐겁게 하고 남도의 푸짐하고 맛난 음식으로 여독을 풀기도 했을 것이다.

온갖 장인이 모여 일하고 값진 물화를 실은 수레가 즐비한 한양의 배오개, 종루, 칠패의 저잣거리를 돌아보며 흥정도 하고 제주로 갖고 돌아갈 물품도 마련했을 것이다.

한양에 도착한 김만덕 일행은 거처를 마련하고 채제공을 만나게 된다. 채제공의 주선으로 선혜청으로부터 달마다 식량을 받고 내의원의 의녀가 되어 드디어 정조와 중전을 알현하는 극적인 일이 이루어졌다.

이를 박제가는 “평범한 아낙조차 있을 곳을 얻게 한 것은 옛날에도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만덕이 이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아치들 사이에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김만덕은 수많은 고관 대신과 선비와 만나 교류하고 봄에 금강산을 거쳐 제주로 돌아오게 된다.

정조가 내준 역마를 타고 관리의 길 안내를 받으며 제주로 돌아오는 길은 은총의 길이 되었다. 소문을 전해들은 관리의 영접과 백성의 찬사가 이어졌다.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조선의 제주제5로는 잊히고 그 일부 구간을 삼남길이라고도 한다. 몽골의 원에서 조선시대까지 유배길이였다. 제주제5로를 거쳐 제주 대정으로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당신이 배운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는 글을 남기고 8년 3개월 만에 유배를 마치고 과천초당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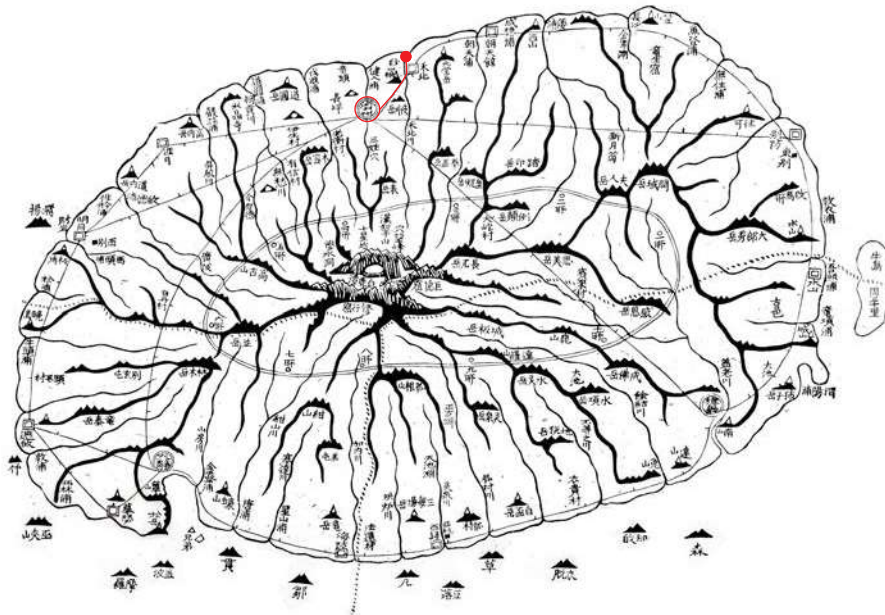
김만덕의 나눔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 그 길은 제주에서 뚝배로 제주해협을 건너 한양을 거쳐 금강산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70년 이상 닫혀있는 금강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김만덕의 도전과 용기, 나눔으로 완성한 그녀의 삶을 되새기면서 남북의 동포가 함께 만덕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김만덕, 167년만에 ‘출도금지’ 빗장 풀다

미리 제주목사로부터 출도를 허락받은 만덕 일행은 1796년 7월 28일 건입포 객주를 떠나 별도봉과 사라봉을 돌아서 2시간 만에 곤을동에 접어들니 화북포에 뚝배들이 보였다. 일행은 배에 오르기 전에 해신사에 들러 무사히 바다를 건너 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만덕이 20세에 제주목사를 찾아가 이유는 기적에 오른 자신 때문에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주도의 백성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시기에 58세의 만덕은 제주도민을 위해 기아가 없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육지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았을까? 인조(1629년) 때부터 여성에게 엄하게 적용된 출도금지령 이래 167년 만에 빗장을 풀고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향했다.





화북포 해신사(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2호)는 화북포구의 동쪽에 있으며, 1820년 한상목 제주목사가 해신제를 지내기 위한 사당으로 안에 '해신지위' 비석을 세웠다.



화북포 해신사 앞쪽의 '금돈지물(용출수)' 식수로 사용했었다.



화북포는 조선시대 조천포와 함께 제주의 관문이었다. 1737년(영종 13) 김정 목사가 직접 나서 방파제와 선착장을 축조했다. 김 목사는 과로로 이 포구에서 운명하였다. 부임하는 관리나 김 정희 최익현 등도 유배 올 때 이곳을 거쳤다. 위 비석은 김정 목사(1670~1737) 선정비이다.



화북진지(禾北鎭址)는 화북포(제주시 화북1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방어유적이다. 진에는 방어에 필요한 객사, 창고, 마방 등 여러 건물이 있었으나 성벽 일부만 남아있다.

↓ 곤울동 4·3 유적지에서 바라본 화북포.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마을이었으나 1949년 군경 작전 때 양민 24명이 희생되고 온 마을이 전소되었다.



섬 너머 큰 바다 건너는 제주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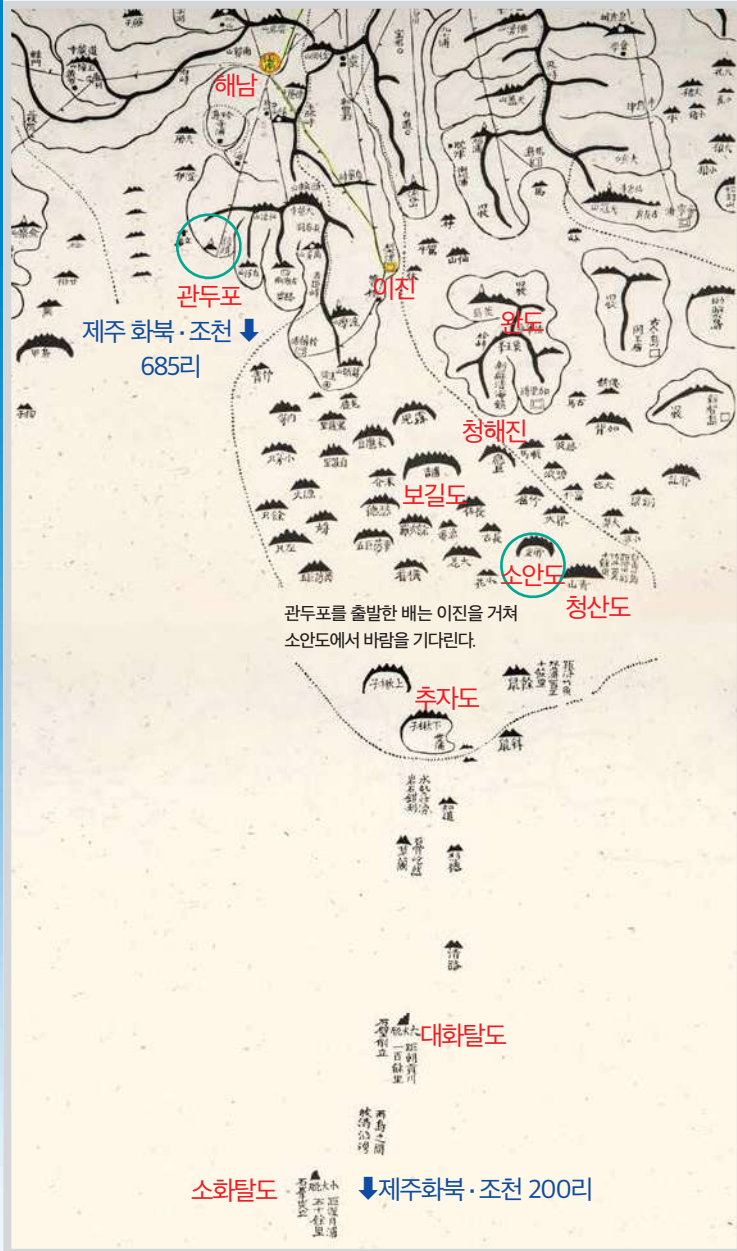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해로는 이진에서 달랑창, 화도, 황간도, 소안도, 서사도, 대화탈도를 거쳐 제주 화북과 조천양포에 이르는 경로는 약75리이다. 해남 관두포에서 어란진, 울도, 갈두포, 광아도, 보길도를 거쳐 제주까지 경로는 685리이다. 강진의 남당포에서 군영포, 고금도, 사후도, 완도, 덕역도, 대화탈도를 거쳐 제주에 이르는 경로는 약779리이다.

제주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진에서 바람을 기다린다. 이진의 동쪽 5리에는 고달랑창이 있다. 창에는 해월루가 있는데 경치가 좋다. 그래서 사객들이 이곳에서 바람을 기다린다. 이진에서 배가 출발하여 남쪽으로 20리를 가면 양하포이고 포구 앞에 덕역도가 있다. 또 30리를 가는 사이에 서쪽으로 소화도, 대화도(화도 근처에는 수세가 아주 사납다.)와 백라리의 여러섬을 지난다. 또 10리를 가면 황간도인데 일명 사자도이다. 섬 아래에는 닻을 내려 배를 정박할 수도 있다. 동쪽으로 완도의 세포가 보인다. 또 20리를 가면 동쪽으로 멀리 서도가 보인다. 또 그 동쪽으로 완도의 세포가 보인다. 또 그 동쪽에는 대서도가 있다. 또 10리를 가면 동쪽으로 치도가 보인다. 또 10리를 가서 포리도의 동쪽을 경유한다. (동풍을 만나면 섬의 서쪽을 경유하여 간다.) 또 10리를 가면 소안도이다. (소안은 한편으로는 소환으로도 쓰는데 대개 섬의 크기가 완도의 다음이기 때문이다. 또 완도는 가로로 서남에 걸쳐 있는데 그 폭이 아주 길다. 이 섬과 마주 보고 있으며 그 간격이 멀지 않다.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해남, 강진, 영암에서 배를 띄워 모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리다 큰 바다를 건넌다.) 섬의 남쪽 10리에 백량이 있는데 바로 보길도의 동쪽 산기슭이 끝나는 곳이다. 이 섬의 동쪽을 경유하여 15리를 가면 잘기도의 동쪽을 지난다. 이 섬 너머는 바로 큰 바다이다. 동쪽으로 여서도가 아주 멀리 보이고, 청산도는 더 멀다.

또 180리쯤 가서 서사도의 서쪽을 경유하면 서쪽으로 추자도가 아주 멀리 보인다.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돌풍이 불순하면 이 섬에서 배를 대고 머문다. 김청음의 '해사록'에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에 가는 배들이 더욱 곤란할 것이다. 표몰하는 근심을 면하는 것은 이 섬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200리쯤 가면 서쪽으로 대화탈도와 소화탈도가 보인다. 또 200리쯤 가서 제주의 화북(한편으로는 별도라고 쓴다.)과 조천 두포구에 정박한다. 화북에서 제주성까지 10리이다. 조천에서 제주성까지는 30리이다. 제주에서 백량 사이의 이수는 배로 갈 경우에 정서로 가서 대화탈도가 보이면 3분의 1이 된다. 정동으로 서사도가 보이면 3분의 2가 된다. 수종은 대화탈도와 서사도 사이에 있는데 화탈도 조금 근처에서 백량을 지나면 섬들이 좌우에 펼쳐져서 걱정이 없다고 한다. 소안도에서 제주로 향하는 사람들이 동북풍과 서북풍을 만나면 기뻐하고 동풍을 만나도 역시 좋아한다. 만약 정남풍과 정서풍을 만나면 배를 띄울 수 없다.

제주에서 소안도로 향하는 사람들이 동남풍을 만나면 기뻐하고 동풍을 만나면 미소 짓는다. 서풍으로 왔다면 더욱 기쁘게 일러서 양마풍이라고 한다. 만약 정남풍이 있으면 바다의 파도가 거세서 배 띄우기를 꺼린다. 서풍에도 배를 띄우지 않는다. 대저 동남으로 두 방향의 바람은 오래 지속되고 남풍은 쉽게 바뀐다.(여암 신경준 '도로고' 참조)





제주를 연결하던 관두포에는 배 밑돌로 사용하던 화선석만 남았다



관두포 봉수대 유적 간척으로 바다가 논이 되었다

김만덕이 처음으로 육지에 첫발을 디뎠을 관두포는 오가는 배도 없는 작은 어촌마을이 되었다. 만덕은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이래 공식적으로 육지로 나온 제주 여인이 되었다. 새로 조성한 방파제에 배의 바닥돌로 사용한 제주의 현무암만이 제주를 연결했던 제1포구였음을 알려준다. 관두포의 관두산에는 봉수대가 있었다. 현재 잡목과 덩굴이 우거지고 허물어진 봉수대터만 남아있다. 바다를 막아 간척을 하여 배가 드나들던 곳은 농지로 변했다. 적정만 흐르는 관두산에서 돛을 올리고 제주로 향하는 배를 상상해 보았다.



관두포 - 해남

관두포에서 해창(海倉)을 거쳐 해남까지 55리(22km)이다. 이곳은 제주와 육지 간 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제주에서 배가 도착하면 미역, 갯양태, 말총으로 만든 망건, 말린 전복 등 특산물을 거래하기 위해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제주의 전통주택지에는 대나무밭이 있으며 숨씨 좋은 장인들이 만든 갯 양태는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을 받았다.



해남에서 영암으로 가기 위해서는 월출산을 돌아서 북으로 가야 한다.



해남읍성의 북벽. 1555년 을묘왜변 때 이 성만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다. 이를 기념해 심은 소나무가 수성송이다.

해남 수성송

임진왜란 37년 전 왜구가 배 60여 척으로 침입하여 강진. 영암의 성이 함락되었으나 해남성만 현감 변협과 지역민이 용감히 싸워 물리쳤다. 수성송은 천연기념물 제430호이다. 수령은 400년이고 해남의 상징목이다. 뒤에 있는 느티나무는 세종 19년(1437) 식재된 것으로 수령 500년이 되었다.



제주문화 답사 3

제주의 전통가옥

글: 임민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8대 회장 (주)예술과 공간 대표



제주 전통가옥,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문화

제주의 전통가옥은 제주지역의 기후와 고유한 풍습, 삶에 그대로 녹아 있다. 제주도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고, 강수량이 많으며 중산간 지역에는 겨울철이 눈이 많이 내린다. 해안지역은 어업, 내륙지역은 밭농사, 한라산을 중심으로 4개 지역이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민가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가옥의 지붕은 새로 엮고 용마름이 없으며 누름줄로 묶었다. 돌담과 방풍림, 풍채 등은 바람과 빗물에 가옥을 보호는 등 자연에서 얻은 친환경 재료와 가옥의 실용적인 구조 등은 현대의 건축물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제주 전통가옥이 가진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면을 살려 현대 건축물에 접목하는 디자인의 진화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 전통 디자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제주도정의 행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전통가옥의 특성

제주 전통가옥은 도서(圖書)형 민가이다. 도서형 민가는 북방적인 문화 요소와 남방적인 문화 요소가 혼합된 가옥이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 배치는 별동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평면은 2칸 형, 3칸 형, 4칸 형으로 세 형태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3실의 3칸 형이 제주도의 표준형 혹은 기본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3실형의 평면 구성 요소는 정지, 고팡, 구들, 상방 등이다. 제주전통 가옥의 대지(垞地)는 그 형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한 것이 특색이다. 대지 내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은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가 직각을 이룰 때는 분리된 ‘ㄱ’자형이 된다. 마당의 3변에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가 놓일 때는 분리된 ‘ㄷ’자형이 되며, 마당의 4변에 안거리, 밖거리, 양 모커리가 배치될 때는 분리된 ‘ㄱ’자형이 된다. 개인보다는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으로 가운데 상방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방들은 작게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 거리는 보편적으로 8m 내외로 툇마루에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기 좋은 거리이다. 투박한 현무암에 처마를 연결하는 덧벽이 있으며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한 발 풍채가 있다. 현무암은 다듬어 쌓아지는데 높이에 따라 수직 방향에 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건물 전체 조형의 안정감이 나타나도록 쌓는다. 목재를 주재로 하여 지붕을 엮는 흙과 새, 현무암, 구조재로는 온대 상록수림인 가시나무, 참나무, 괴목 등이다. 실내는 친환경 재료인 대나무나 잔 나뭇가지들을 새끼로 엮어 시클흙이나 회벽을 바른단.



한국 전통가옥과의 특성 비교 분석

토속적 양식은 한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환경과 민족적 배경 아래서 그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러운 욕구가 가미되어 왔다. 이것은 유기적인 조형과 실용적인 문제해결 면에서 오늘날의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디자인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토속적이고 관습화된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heritage)은 특정 개인인 건축가, 디자이너, 발명가 등의 개인적 의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관습적인 방법과 생활환경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시각적 쾌감을 위한 조형보다는 노동량을 경감시키고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 실기능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온 무의식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토속 디자인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전통가옥의 배치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ㄱ’ 자형은 중부지방 살림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ㄷ’ 자형은 남도형 상류가옥의 안채이고 ‘ㄴ’자형은 북부형 상류 가옥의 안채에서 볼 수 있다. 진입 방식은 행랑→사랑→안마당→별당→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적인 공간구성이 두드러지며,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폐쇄되어 있으나 하늘로 열려있는 외부공간으로서의 안마당, 사랑마당, 그리고 집의 외부에서 가장 깊숙한 안마당까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 전통가옥은 지리적 위치나 기후,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이 구조와 사뭇 다른 독특함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입면구성에 있다.

목구조를 기본으로 양단부에 제주석의 벽을 쌓은 이중외피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외피와 내피의 사이 공간은 내·외부공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맺어주는 매개공간으로 외부 환경과 건물 동을 하나의 일원화된 건축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제주 전통가옥의 입면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는 자연환경의 산물이며 자연 섭리에 맞춰 지어진 유기적인 건축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 전통가옥 및 제주 전통가옥의 특징에 관련한 디자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한국 전통가옥의 특징	제주 전통가옥 특징
배치	- 한국 전통가옥의 배치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ㄱ’ 자형은 중부지방 살림집이고 ‘ㄷ’ 자형은 남도형 상류 가옥의 안채이고 ‘ㄴ’ 자형은 북부형 상류 가옥의 안채이다. - 진입 방식은 행랑→사랑→안마당→별당→사당으로 이루어진다.	- 공용공간과 사적 영역의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올레목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완전 개방도 아니고 완전 폐쇄적이지도 않아서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 배치 형식이다.
조형	- 한국의 지붕선은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즉 그 두 점간의 변화가 부드러우며 단아하고 연속적이다. - 한국의 전통건축에서는 차경을 사용하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조망한다.	- 바람에 대한 고려로 지붕은 유진각지붕이고 물매가 낮고 둥근 모양이다. ‘새’ 줄로 그물 모양으로 엮어매었다. - 망목의 크기는 25×25cm 내외이고 새 줄의 굵기는 3-4cm이다.
공간구성	- 유기적 공간구성이 두드러지며,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폐쇄되어 있으나 하늘로 열려있는 외부공간으로서 안마당, 사랑마당 그리고 집의 외부에서 가장 깊은 안마당까지 연계되어 있다. - 정면 3.5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정면×측면=3칸×2칸 3칸×3칸이나 정면 5칸×측면 2, 3, 4칸 공간구성이 보편적이다.	- 가옥의 평면은 부엌+헛방+마루 또는 부엌+마루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대생활의 기본인 침식 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별 기능분화가 잘되어 있다. -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가운데 상방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방들은 작게 구성되어 있다. -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 거리는 보편적으로 8m 내외로 툇마루에서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기 좋은 거리이다.
입면	한국 건축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처마선 곡선반지름이 훨씬 크게 들어가는데 그 형태는 완만한 곡선으로 복식 가구 및 도구류 등에 잘 나타나 있다.	- 투박한 현무암에 처마를 연결하는 덧벽이 있으며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한 발 풍채가 있다. - 현무암은 다듬어 쌓는데 높이에 따라 수직 방향에 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건물 전체 조형에 안정감이 나타나도록 쌓는다.
재료	- 나무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조재로 주로 소나무를 사용했다. - 한국은 경질의 화강석이 풍부하여 오래 전부터 그 물성과 재질을 사용했다.	- 목재를 주재로 하여 지붕을 얹는 흙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조재로 새 현무암 구조재로는 온대 상록수림인 가시나무, 참나무, 괴목 등이다. - 실내는 친환경 재료인 대나무나 잔 나뭇가지를 새끼로 엮어 시글흙이나 회벽을 바른다

제주의 가옥은 진입로 올레목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반개방형이고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은 8m로 툇마루에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고 사생활도 보호된다. 북방 대륙과 남방 해상의 거주 문화가 제주도에서 융합되어 있다. 옆 사진은 몽골식 게르가 제주의 재료로 재창출된 것이다. →







<제주 120만덕콜센터> 조례 발의한 강성민 의원 인터뷰

“나눔과 베품의 삶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기리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



‘제주안내 120콜센터’가 ‘제주 120만덕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연중무휴 07:00~22:00 운영된다.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도민과 관광객의 궁금한 민원을 해결하는 행복도우미 창구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강성균(애월읍)·문중태 의원(건입·일도1·이도1동)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며,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2017년도 기준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46만 8천 명에게 도정관련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지방행정혁

신 철학을 가지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의 다산(茶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120콜센터에 ‘만덕’의 명칭이 들어가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산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강성민 의원은 11월에 열린 제36회 정례회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여 변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변화와 협력, 나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최종 조례안은 <제주 120만덕콜센터>입니다.

타 지역 또한 서울(다산콜센터), 대구(대구120 달구벌콜센터), 인천(120 미추홀콜센터), 울산(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부산(120 바로 콜센터) 등 지역의 특성 및 콜센터의 이미지를 살린 이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민원 콜센터 명칭을 온 제주도민의 존경의 대상인 ‘만덕’의 함자를 넣어 변경코자 하는 것은, 나눔과 베품의 삶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기리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도민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했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난 2011년 120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만약 6.13지방선거에 당선이 되면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처럼 꼭 만덕이라는 이름을 콜센터에 넣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당선 이후 곧바로 제주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치고, (사)김만덕기념사업회의 긍정적인 의견 검토 후,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120만덕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콜센터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또한 1일 상담건수는 1,257건에 달하는데, 이는 부산 1,400건, 경기 3,000건 등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의 인구규모에 비해 상담건수가 상당히 높으며, 이는 관광객 이용률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콜센터 안내 및 응대시 자연스럽게 “만덕”을 홍보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속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현재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 그 지역의 인물을 콜센터에 넣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만덕을 넣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강의원.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와 오페수 문제를 비롯해 폭염 대응, 유니버설디자인 확장,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 간사로서 도의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조선의원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지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제주와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제가 앞장서 이인영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이 참석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에도 앞장서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변화와 협력, 나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덕기념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의 관문에 위치한 기념관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국내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은_恩광_光연_衍세_世

글: 양진건 · 김진철

은(恩) 나눔으로 쌓인 만덕의 은혜

광(光) 시대의 빛이 된 만덕의 도전

연(衍) 널리 퍼진 만덕의 선행

세(世) 세대를 넘어 전하는 만덕의 정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그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삶은 도전과 나눔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삶은 추사 김정희가 남긴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글씨에 어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역경을 딛고 최고의 상인이 되어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김만덕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보여준 그녀의 은혜로운 빛을 따라가 봅시다.



은(恩) 나눔으로 쌓인 만덕의 은혜

나눔의 행복

나눔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 돈, 재능, 마음, 힘(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는 “나눔의 진짜 이름은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어요. 나눔으로 유명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사업가 록펠러와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사업으로 번 돈으로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을 세웠고, 카네기는 철강 사업으로 번 돈으로 많은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면서 자선사업과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최근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 매년 수백 억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지요. 모두 자신이 쌓아올린 재산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내놓았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나눔의 실천은 베푸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김만덕이에요. 김만덕은 제주 최고의 상인이 되어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제주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돈보다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것이죠.

나눔으로 지켜낸 공동체

만덕이 살아있을 때만해도 “산 높고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 돌 많고 땅이 척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 사방이 큰 바다이니 바람이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는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섬이었어요. 만덕이 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제주에는 여러 해 흉년이 이어졌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서 쌀을 보낸 배 12척 중 5척이 난파되고 말았답니다. 지독한 흉년에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쌀 300석을 구입한 후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채제공은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고 만덕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만덕 외에도 현감을 지낸 고한록이 300석,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이 각각 100 석씩을 내놓았지요. 다른 이들이 벼슬을 지냈거나 지역의 명망가였던 것에 반해 만덕은 천인 출신에 여성의 신분임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쾌척했답니다. 만덕이 기부한 쌀로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하니, 그 쌀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조건 없이 내주기란 쉽지 않아요. 만덕도 자신의 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객주에 다녀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덕의 선행으로 제주 사람들은 다행히 ‘갑인년 흉년’이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만덕의 나눔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한몫을 한 셈이지요.

나눔의 자격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들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최귀동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남의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결인들을 돌봐주었어요. 자신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에 우리는 더욱 감동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보듬을 줄 아는 숭고한 정신이 깊은



제3회 나눔공모전 우수상
봉사 정우원

감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십 만 명의 어린이가 방학에도 급식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절반은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장애와 희귀병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지요. 이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것을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 마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

고 원주민의 병을 치료한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의 사례는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잡지 <빅이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이 음성을 기부하는 소리책 등의 사례들은, 작은 재능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능 기부는 만덕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광(光) 시대의 빛이 된 만덕의 도전

불가능을 극복한 용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국내 경영인 어록 중 1위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를 뽑은 것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한계와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곤 하지요.

최고의 음악가인 베토벤도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인물이에요. 베토벤은 어느 날부터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악가에게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베토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서까지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작곡해 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기보다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만덕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과연 만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는 말처럼 만덕의 용기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도전이 보여준 가능성

만덕의 첫 번째 도전은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양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만덕은 12살에 부모를 잃은 후부터 기녀의 집에서 자랐어요.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기녀의 수양딸이 된 만덕 역시 천인 신분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홍길동전」에서 보듯이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뿌리 깊었어요. 그러니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지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답니다.

그렇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신분을 되돌려달라며 수 차례 관아에 호소를 했어요. 보통 만덕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체념하고 기녀 생활에 적응해 살기 마련이에요. 더구나 신분제가 견고했던 조선시대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만덕은 다른 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 만덕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양인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어요.

만덕과 같이 노비의 신분을 극복한 사례로 장영실을 들 수 있어요.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벼슬을 지냈지요. 장영실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세종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덕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천인에서 양인로의 신분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특별하지요. 그래서 만덕의 신분 회복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덕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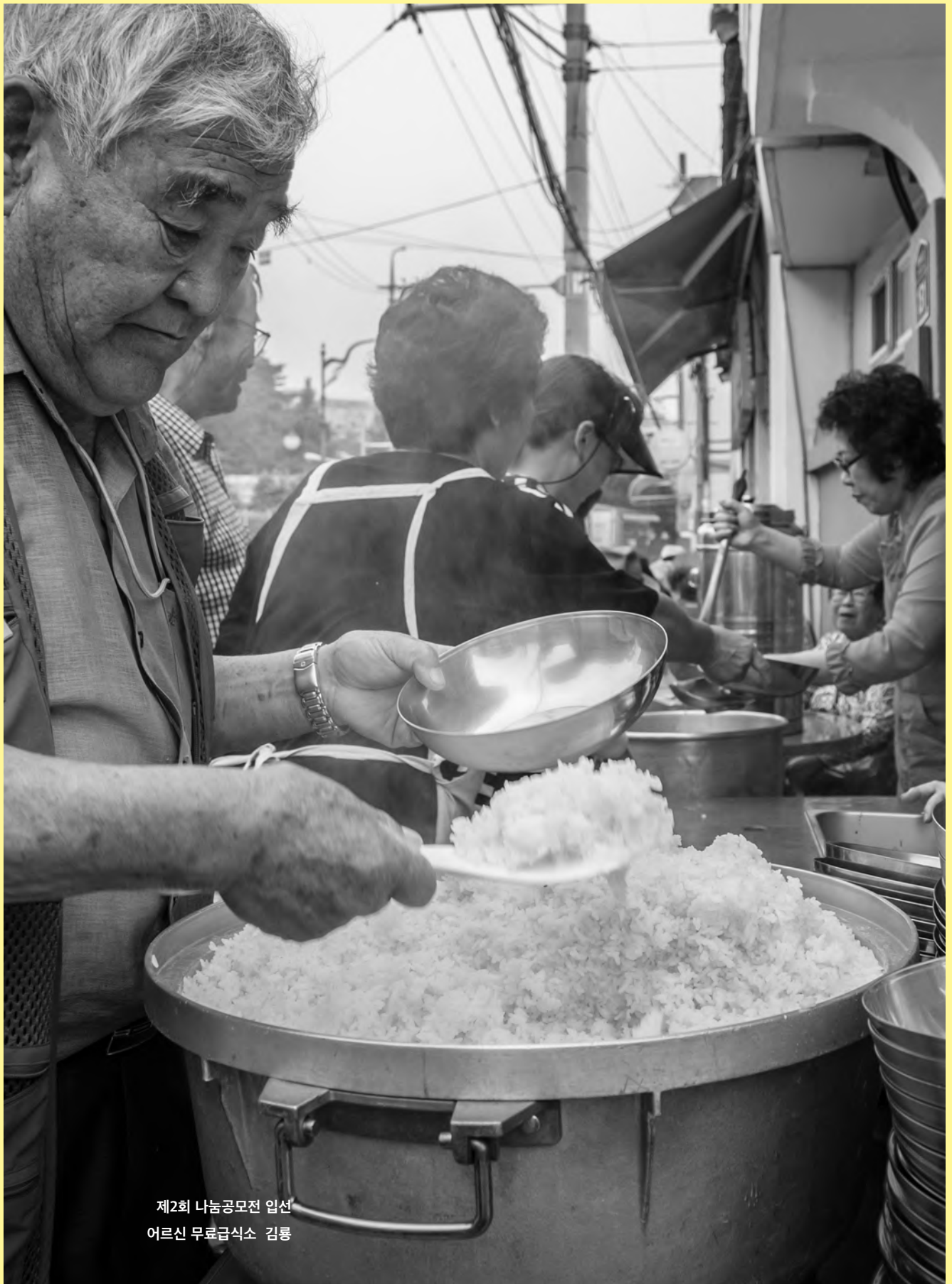
만약 만덕이 기녀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훗날 의인으로서의 만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그녀는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 덕분에 자신의 꿈을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양인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앞날은 더욱 험난했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주의 여성들은 대부분 바다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해녀가 되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바다와 친숙해지고, 선배 해녀들로부터 물질 기술을 이어받아 해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지요. 하지만 만덕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



제3회 나눔공모전 응모작
나눔의 골목길 임광엽



제2회 나눔공모전 입선
어르신 무료급식소 김룡

연(衍) 널리 퍼진 만덕의 선행

과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고,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은 디지털 음악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또한 아이폰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선도했지요.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기생에서 벗어난 만덕이 선택한 것은 상인이 되는 길이었어요. 왜 만덕은 상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수공업과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물건의 왕래가 늘어나고, 여러 지역의 특산물들이 유통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맡아 팔았던 객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객주의 중요성이 더했기에 그 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만덕은 물산객주를 운영하면서 위탁판매를 비롯해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의 업무를 통해 상인으로서의 능력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만덕은 상공업이 발달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상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제주의 여성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제주 제일의 거상으로 거듭났어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만덕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간 시대의 빛이 되었답니다.

이름을 남기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훌륭한 일을 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후세에 이름이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을 꿈꿨지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

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인 조선시대에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름을 드날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덕의 선행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에 당당히 기재되어 있어요. 정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에는 만덕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일이 언급되고 있지요. 그것은 만덕이 보여준 선행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신하들에게 만덕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 명을 받아 채제공을 비롯해 박제가, 정약용, 이가환 등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그녀에 대한 글을 남겼지요. 만덕의 선행은 이렇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어요. 만덕은 아름다운 나눔을 보여준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지요.

우리도 학자들의 기록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만덕의 선행을 다시금 만나고 있어요. 한 명의 여인을 위해 당대의 대가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그만큼 만덕이 보여준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차별을 넘어서

정조는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명을 내렸어요. 만덕이 원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왕이 사는 궁궐과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을 둘러보기를 원했답니다.

당시 제주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육지 사람과 혼인까지도 금지할 정도였어요. 넓은 바다 속에서는 한없이 자유로웠던 제주의 여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그래서 만덕의 소원은 참으로 당돌한 요구였어요.

제주 사람이,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육지의 땅을 밟는다



방글라데시에서 미혼모들을 돌보는 수녀님

세(世) 세대를 넘어 전하는 만덕의 정신

는 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만덕은 왕의 허락을 받고 금기를 뛰어넘어 육지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답니다.

왕이 머무르는 궁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일개 평민이 궁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더구나 왕을 만나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덕에게는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명예직이 내려집니다. 만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자들이 평생에 한 번 가기 힘들다는 금강산까지 유람하면서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는 4월 15일이면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뛰니다. 흑인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재키 로빈슨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재키 로빈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차별을 받았지만, 곳곳이 이겨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의 노력은 이후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메이저리그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재키 로빈슨은 차별의 벽을 허문 상징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지요.

만덕의 행동도 바로 사회적 차별을 허무는 행동이었어요. 제주 사람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라서 안 돼, 제주 사람이어서 안 돼, 평범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차별을 극복하고 역사의 기록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놓았던 것이에요.

정직과 신용으로 일군 신뢰

경주 최씨 가문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재산을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며,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

라’는 최씨 가문의 가훈은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만덕의 선행은 바로 이러한 정신과 닮아 있어요. 만덕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인으로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싸게, 그러나 많이 판다”, “알맞은 가격으로 사고 판다”, “정직한 믿음을 판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고 하지요. 만덕의 장사 원칙은 재산을 쌓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공존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기업가들의 목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에요. 만약 만덕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탐욕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만덕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만덕은 정직을 앞세워 장사를 했어요. 제주 사람들과 공존을 위해 노력한 만덕의 상업술은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지요.

만덕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제주해녀들의 모습과도 닮아있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는 불턱의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할망바당 등에서 보이는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은 만덕이 상업을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지요.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마음을 만덕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만덕을 기억하며

만덕은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제주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해지는 만덕의 선행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의 <은광연세 恩光衍世>라는 글씨를 후손에게 써 주었습니다. 추사의 글씨처럼 우리나라 변방의 섬, 제주에서 보여준 만덕의 선행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어요. 정조가 만덕의 기록을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 추사가 글씨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만덕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눔을 통해 쌓아올린 보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덕과 같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주 사람들은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갑인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만약 나만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른척 했다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을 내놓은 것처럼 자발적인 나눔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죠.

나눔으로 이어진 길

제주의 여성들은 만덕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고수선 여사는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홍익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구호활동을 펼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과거 만덕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선 여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만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김만덕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또한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스타운튼 수녀는 1976년부터 20여 년 동안 한림 이시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에 걸려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했어요. 국적은 달랐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성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만덕상을 수상했어요.

이처럼 제주도는 이웃 사랑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김만덕상을 수여했어요. 수상자들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만덕이 보여준 나눔의 빛을 이어간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빛이 되는 나눔의 문화

오늘날 나눔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바쁜 일이 끝나고 한가하면 해야지 하는 생각에 자꾸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면 거창한 나눔이 아니더라도 한 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돈이나 물품 등의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재산 나눔을 할 수 있어요. 또 자원봉사와 같이 지식과 기술로 도움을 주는 일손 나눔도 있지요.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쳐지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만덕의 정신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나눔의 문화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첫 걸음이에요.

만덕은 고아에서 기녀로, 다시 상인으로, 그리고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했어요. 만덕은 죽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되는 인물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옆에 누군가가 갑인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덕과 같이 수백 석의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만덕을 기리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김만덕 '배려·나눔의 삶'을 떠올리며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위미초등학교 학생들의 독후감





현가연

나눔이 생명을 살린다.

김만덕은 나눔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김만덕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곳, 그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 문화전시관에 가고 싶다.

김만덕이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김만덕님,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저도 좋은 생각 갖게 해주셔서 우리 집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만덕님을 존중하겠습니다.



강민규

김만덕은 74살에 돌아가셨다.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신분을 바꾸다니 대단하다. 지금은 외지를 쉽게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쉽게 오가지 못했는데 먼곳까지 다녀오셔서 대단하시다.

김만덕은 욕심이 없는 것 같다.

나도 커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고 싶다.



황보애다

김만덕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74살에 돌아가셨다.



고민기

김만덕은 1739년에 태어났다. 김만덕은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들을 여의고 만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겨진 형제들과도 흠어져 살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외로울 것 같다. 하지만 김만덕은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하시다.



오채은

김만덕은 순식간에 부모를 잃어서 몸을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형제들은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찾았습니다. 만덕만 머무를 곳이 없었는데 어떤 기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만덕은 참 고마웠습니다. 만덕은 기녀의 집에서 딸로 지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만덕은 기녀 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녀로 지내기 싫는데 참아낸 만덕이 자랑스롭습니다.



허재연

김만덕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프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이별이라니 ㅠㅠ 커서 김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저도 존경 받아야겠네요. 김만덕은 힘든 일을 하고 살아 왔네요. 지금 현재는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겠네요. 김만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김만덕님 존경합니다.



정태희

김만덕은 무슨 책을 읽고 있었을까? 김만덕은 책을 보면서 웃는데 재미있어서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책이 얼마나 재미있기에 활짝 웃고 있을까?

김만덕은 1812년 7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부럽다. 김정희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글씨를 후손에게 써 주었다. 만덕의 그림을 그려서 부럽다.



오세연

김만덕은 제주에서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한 기녀가 손을 내민다. 기녀는 천인에 해당되어서 김만덕도 18세까지 어쩔 수 없이 기녀로서 삶을 살아야했다. 만덕은 매일같이 수차례 관아에 찾아가서 신분을 되돌려달라고 빌었다. 만덕은 결국에 양인의 신분으로 회복했다. 부모님을 잃어도 성공하는 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럽다.



김주현

김만덕은 1739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만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맙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나이에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만 것입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현석

김만덕은 1812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제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김만덕은 1739년(영조 15년) 제주의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면 자연스럽게 천민 신분이 되었던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에 만덕 역시 천민 신분으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멋진 사람이어서 나을법한 일이다. 그리고 또 멋지다.



유건우

김만덕은 1812년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겸손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만덕을 비롯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으면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만약 나만 살기 위해 주위사람을 모른 척했다면 제주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준아

김만덕은 제주의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만덕은 몸을 누일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면 자연스럽게 천인이 되었던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에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양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강서연

나눔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가다니 마음의 상처가 크겠다. 그리고 기녀의 딸이 되었다. 만덕은 그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재능기부를 하면 만덕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다. 나는 만덕을 존경할 것이다. 멋진 이 분을 칭찬한다. 나눔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몰랐다. 작은 빛이 큰 빛이 되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어 김만덕의 뒤를 이어가겠다.



강예원

김만덕은 순식간에 부모를 잃어서 몸을 누일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행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녀만은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덕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기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귀하고 천함이 있어 양반과 중인, 상인, 천인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는데 노비와 백정, 기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덕을 벼랑의 끝에서 구해 준 이가 천인 신분인 기녀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강서원

신분이 내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았다. 더군다나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고 한다. 노비들은 양반들 사이에서 매매 대상이 되거나 관아에서 노예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기녀가 된 삶은 벗어나야 할 굴레와도 같았을 겁니다. 정말 만덕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양예지

만덕이 기녀의 삶을 유지했다면 부잣집 양반과 혼인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덕은 다른 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만덕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양인의 신분을 되찾기에 이릅니다. 만덕은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만덕을 존경합니다.





2018 1 - 12 교육프로그램 주요 행사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

주최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주관 김만덕기념관, 제주경로당광역지원센터 촬영 알렉스 김

후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은행, 제주농협, 제주국제협의회





“계속 눈을 비비시기에 여쭙더니 오늘 남편 49재라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계시라고 … 파인더에 비친 어머니와 둘이서 울었습니다.”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 제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주관하며 1,000명의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인물상 부문’ 수상자인 사진작가 알렉스 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에게 장수효도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하는 알렉스 김은 그동안 사진작업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제주도에서의 효도장수사진 작업은 사진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세계각지를 다니면서 인물사진을 찍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서 몇 달도 있었고 남미 마추픽추도 다녔지만 올해 제주에서 어르신들 사진촬영처럼 어려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로당 두 군테를 다녀오면 진이 빠지더군요. 많은 분들이 조명과 삼각대를 쓰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서는 차라리 사진관 가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80년~90년 사시다 보면 몸이 자연스러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의 근육이 한쪽으로 붓기도 하므로 삼각대

를 쓰면 저는 편하지만 그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진을 대충 찍을 수 있냐며 손도 잡아드리고 잘 못 듣는 분께는 귀에 대고 이야기도 나누다보니 50번도 넘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해도 파인더에 비친 어머니와 둘이서만 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계속 눈을 비비시기에 눈이 불편하냐고 여쭙더니 오늘 남편 49재라고 하는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계시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늦게 주기로 유명한데 사진을 전해주기로 한 날 한 분이 오지 않으셔서 물었더니 그사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찍은 사진 언제 주냐고 혹시 나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들곤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찍은 사진을 손봐서 액자에 넣어 보내드려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게으른 저의 한 달이 그분들께는 1초와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시간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제주에서 1,028명의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부모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앉아서 찍다가 어느새 무릎을
꿇고 카메라로 앵글을 잡습니다”

알렉스 김은 제주도 각지의 경로당을 돌며 4월부터 12월까지 1,028명의 사진을 찍어드렸다. 마지막으로 두 분을 더 찍었는데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셨다. 그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로부터 인물 부문 우수상을 받은 전문 사진작가이다. 정작 부모님은 계속 미루고 찍어드리지 못해서 제주도 분들의 사진을 모두 마치면 마지막 두 분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 부모님 댁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오래 고생하신 아버지께서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전했다.

그는 파키스탄 수롱고 마을 알렉스초등학교 이사장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꿈을 찍는 사진작가로 여러 나라를 돌며 아름다운 자연과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히말라야에 머물 때 주변 포터마을 10곳에서 창고 같은 학교 건물은 있지만 유일하게 선생님이 없고 해발 3000m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가 오지마을 ‘수롱고’였다. 그는 척박한 환경과 가난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수롱고 어린이들을 위해 청년 선생님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아이들의 학용품과 학교유지 비용을 8년째 지원하고 있다.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은 제주지역 경로당 및 노인대학 60개소, 1,028명의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담은 액자로 전달하였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은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원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어르신들이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모습은 KCTV 및 제주新보, 한라일보, 스포츠투데이 등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두고 취재 및 보도를 하였다.

제주 어르신들의 삶을 담은 사진에는 민족 최대의 격동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겪었던 온갖 풍상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자신을 사진으로 남기는 짧은 순간이지만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래도 모두가 한복을 차려입으니, 잔치 같은 분위기로 즐겁게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이끈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농협, 제주은행, 제주국제협회의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 나눔교실

나눔은 물질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즐거움, 행복,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연중 기획프로그램으로 ‘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 나눔교실’을 운영하였다. 4월 22일 화순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삼양2동 경로당, 애월읍 남읍리 경로당, 조천읍 북촌리 경로당, 조천읍 신촌리 서부경로당, 조천읍 함덕 4구 경로당, 용담1동 명신마을 경로당, 영평상동 경로당, 유수암 경로당, 남사 경로당, 조천비석거리 경로당, 조천읍 동부경로당, 올해 마지막으로 11월 16일 동광경로당을 방문하였다.

봉사를 담당한 한미경 원장(제주꿈고치하게 교육원)과 함께 김만덕의 삶과 도전, 나눔정신을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어르신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산가지 게임 등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즐거움, 행복,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지역의 어르신들은 기부와 봉사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때문인지 처음에는 생소해 하였지만 신나는 장단에 맞춰 체조도 하고 ‘싱긋 방긋’ 웃음을 나누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서 배워 오기도 했다. 조천읍 북촌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평소에도 ‘세월호 성금 모금 참여, 우즈베키스탄 지진피해 모금 활동’참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셨다. 어르신에게서 김만덕과 나눔에 대해 소통하며, 나눔의 또 다른 의미를 배우기도 했다.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흥미로운 오감체험을 하면서 나눔을 배우는 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나눔노래배우기, 김만덕 자화상 그리기, 에코백 만들기, 주먹밥 만들기 등 다양한 오감체험을 한다.

학생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노래도 하고 놀이를 통해 나눔을 체험한다. ‘김만덕 자화상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김만덕과 자신을 투영하여 자못 진지해지기도 한다. 주먹밥을 만들며 과거 제주도의 어려웠던 시절의 먹거리를 만들어 친구와 모양을 비교하기도 하며 즐거워한다. 에코백에 자신이 만든 결과물과 ‘김만덕의 나눔정신’도 함께 담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일시	학교명
2018.04.25.	하원초등학교
2018.05.30.	구암초등학교
2018.06.27.	세화초등학교
2018.07.25.	장전초등학교
2018.08.29.	교래분교
2018.09.19.	서귀포초등학교
2018.10.31.	안덕초등학교
2018.11.28.	대정초등학교



신(新) 김만덕 객주

동문시장 상인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김만덕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올해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제주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5회에 걸쳐 신(新)김만덕 객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신(新)김만덕 객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적인 가치를 체험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1월 29일 마지막 김만덕 객주 프로그램은 제주동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그룹별로 전략을 세우고 직접 시장을 찾아 판매할 물품을 마련해서 되파는 미션을 하였다. 김만덕께서는 어떤 경영원칙을 가지고 사업했는지를 배우고 그

에 따른 판매전략을 세워 잘 홍보된 물건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돈은 별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체험한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자파리’ 행사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로 주먹밥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신나게 만들고,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김만덕의 나눔, 개척, 리더십,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김만덕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탐험대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념관과 사라봉을 오가며 김만덕과 나눔에 대한 체험 학습형 교육 프로그램

2018년 4월 14일 '이도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초등학교 20명은 '김만덕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탐험대'에 참여했다. 이 탐험대는 김만덕과 나눔에 대한 체험 학습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나눔에 접근하여 인성을 높여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 지향형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어서 6월 23일 '안덕지역아동센터, 대정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은 나눔문화 탐험대가 되어 김만덕기념관을 찾아 전시실에서 '김만덕의 삶과 나눔정신을 배우고, 우리는 타인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 모충사를 찾아 김만덕할머니의 묘 앞에서 제주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할머니께 감사를 드렸다. 탐험대에 참여한 한 친구는 '나눔이 행복이 되고, 그렇게 행복이만 들어진다.'고 느낀 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12월 13일(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악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친구야 고마워~!" 포일을 활용한 나눔엽서에 옆자리 짝꿍에게 따뜻한 말을 적어서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초등학교를 위한 체험학습형 나눔교육 프로그램이다.



만덕할머니, 나눔이 뭐예요?

가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 가족만의 나눔을 실천해 본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가족나눔교육- 만덕할머니 나눔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월 14일 프로그램은 “우리가족의 숨겨진 나눔얼굴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의미를 학습하며, 가족 안에서 어떤 나눔을 주고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스칸디아모스(순록이끼)를 활용하여 가족의 얼굴을 표현해보며,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9월 8일에는 “우리 가족 나눔이 반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의미를 알아보며, ‘우리 가족만의 나눔’을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12가족은 [김만덕 가족 나눔교실 - 만덕할머

니, 나눔이 뭐예요?] 12월 15일에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나누며 따뜻한 우리집’이라는 주제에 따라 ‘나눔은 마음이 다’라는 우리 가족만의 예쁜 카드와 나눔 트리를 만들며, 나눔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가족이 만든 나눔 카드는 김만덕기념관 트리에 예쁘게 장식하여, 제주 MBC <생방송 제주가 좋다> 에서 12월 21일(금) 08:30 방영되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매달 2회 도내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다른 주제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익히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덕할머니와 나눔항아리

만덕과 푸른 항아리 동화를 읽고 친구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유아 나눔교육 프로그램 “만덕할머니와 나눔항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눔동화 : 만덕과 푸른 항아리’를 함께 읽고, 김만덕할머니의 나눔정신을 배우며,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몸으로는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에게는 친구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과, ‘사랑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예쁜 ‘입’이 있다. 나눔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눔의 실천은 ‘사랑해’ 하

고 예쁜말을 함께 나누며, 두 손으로 포옹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시작이다.

3층 전시실 관람을 통해 김만덕할머니의 삶과 도전, 나눔정신을 배우고, 2층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제주영락유치원,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집, 연두어린이집, 건입동어린이집, 전원유치원 사랑반, 금호유치원, 새솔어린이집, 제주국제대학교부속유치원 굴림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만덕봉사단

우리는 한달에 한 번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덕봉사단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덕봉사단은 3월 24일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송죽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죽원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중증장애인들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심리적 환경 개선 및 직업·의료·재활서비스와 장애인 인식에 대한 사회 환경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이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에 전념해야 했고 대학에서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학우들

과 맘 홀리며 봉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된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학생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바쁘지만 매달 봉사가 있는 날만큼은 포기하고 온다.’며 자주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는 이 봉사를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려주고 보람을 주니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올해 봉사활동에는 제주대학교 학생 15명이 참석하여 시설의 체육관과 물리치료실 환경정비, 도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했다.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월 1회라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

소품을 활용한 캘리그래피 문화강좌



올해는 나눔특강과 더불어 나눔문화강좌를 진행하였다.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라는 주제로 소품을 활용한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었다.

총 12회에 걸친 수업 동안 엽서, 스탠딩카드, 캔버스작업 등 여러 방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는 시간이었다.

수강생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제2회 김만덕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김만덕기념관에 한 달여간 전시되었다.

많은 분들이 나눔문화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나눔문화강좌를 체계화 시켜서 만덕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캘리그래피뿐만 아니라 사진-애니메이션 그림 등 분야를 넓혀서 문화강좌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만덕기념관 개관 3주년 행사

김만덕 선양사업과 각종 문화예술, 교육, 나눔 등의 활동을 수행

김만덕기념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가 5월 19일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관 기념 기획전 이정미 작가의 ‘돌·바람·물’ 전시 오프닝, 개관 3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였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고두심 대표는 “이 기념관을 지어서 3주년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만덕 선양사업과 각종 문화예술, 교육, 나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3년입니다. 김만덕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관계기관과 도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화북주공1단지 경로당 어르신을 모시고 ‘어르신 장수효도사진’을 액자에 담아 증명하였다. 이어 제주축협과 (주)미사 조영

숙대표가 사랑의 쌀을 기념관에 기부해 주었고,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만덕 사랑의 쌀 1톤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적십자 제주지사의 행사인 ‘제주 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의 참가자들 3,00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고, ‘김만덕 사랑의 쌀’ 1,200kg을 적십사에 기탁했다.

푸림브라더스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 김지하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 ‘고치갈레 고치가제(함께 가자)’ 노래로 김만덕기념관 개관 3주년을 축하했다.

김상훈 관장은 “3년 동안 보여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며 더욱 발전하는 김만덕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참석 인사와 그동안 기념관을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개관 3주년 기획전 <이정미 돌·바람·물>

선과 형태, 색, 질감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실용적인 조형 언어를 창조하는 여성 도예 작가



‘돌·바람·물’의 이정미 작가는 한국 미술이 지닌 다양한 미적 특질을 재해석하고 현대 도예의 재료와 수법으로 획득한 선과 형태, 색, 질감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실용적인 조형언어를 창조하는 여성 작가이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여인을 주제로 하여 흙과 전통 옷질을 이용해서 제주의 돌과 바람, 물 그리고 여인을 표현하였다. 이정미 작가는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인간은 넘어지거나 견디어 내기도 합니다. 제주의 강한 바람을 이겨내어 삶은 지탱해온 제주 여인들의 강한 정신을 물에 비친 달과 흰색과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도예작품으로 형상화 했습니다.”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기념관이라는 큰 틀에 자리한 작품을 통해 김만덕을 느끼길 바라는 작가의 고뇌와 열정이 와닿았다.



흙은 어떤 모양으로든 가공이 되지만 불을 만나야 고정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도예작품은 건조와 불에 굽는 과정에서 20% 정도 줄어들고 유약에 따라 원하는 색을 만드는 과정이 몹시 어렵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옷칠을 이용해서 은은하고 변치 않는 색상을 만들어냈다. 도예작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앉아서 쉬는 의자가 되기도 하고 벽에 걸린 작품은 맛난 음식을 담아내는 도마가 되기도 한다.

이정미 작가는 제주의 자연과 제주여인의 희로애락을 도예로 표현했고, 그 안에서 불굴의 의지로 우뚝 선 대형 제기와 향로를 형상화한 작품을 은광연세 공간에 배치하였다. 그의 작품이 설치된 공간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과 검은 바다와 여인을 형상화한 다른 모양의 도예물, 보라색 달이 바다에 투영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백성을 살피는 달이고자 했던 정조와 혹독했던 기근으로 고립된 제주 섬 바다 위에서 있는 흰색과 보라색의 형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서있는 제주여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자연광이 하늘에서 비치는 공간에 붉은색 돌형상 도예작품이 자리해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는 기운을 느꼈다.

그의 작품에 스며있는 김만덕은 우리러바야 하는 성인이기보다는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주변을 뛰어놀다 이야기를 나누면 힘을 얻을 수 있는 할머니의 자상함으로 다가섰다.



제2회 김만덕 주간-나눔 큰잔치

만덕제, 나눔큰잔치에 각계 각층의 도민, 관광객이 참여





10월 21일 만덕제 봉행과 김만덕상 시상식이 사라봉 모충사에서 진행되었고, 김만덕나눔큰잔치가 동문로터리 탐라광장 및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 열렸다.

KCTV로 생중계된 ‘나눔 큰잔치’ 개막행사에서는 제라진합창단의 개막공연에 이어 양원찬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개회인사와 김태석 도의회의장, 임태봉 보건복지 여성국장이 축사를 하였다.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인 강영희 씨와 좌옥화 씨가 무대에 올라 수상소감을 밝히 큰 박수를 받았다.

고추월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윤진호 정형외과 원장, 제주 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회장 김봉오), 제주농협(본부장 고병기), 조영숙 (주)미사 대표, 고정신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강명순 연꽃러리 관장, 임민희 (주)예술과 공간 대표, 건입동새마을부녀회 (회장 조두희)가 만덕 사랑의 쌀을 기탁하였다. 이 쌀은 27일 ‘나눔데이’에 제주시 6톤, 서귀포시 4톤 등 총 10톤이 전달됐다. 김만덕상수상자회(회장 진춘자)와 홍영선 35회 김만덕상 수상자, 소롭티미스트제주클럽, 강영희 씨, 좌옥화 씨 등이 각각 성금과 나눔쌀을 기탁하였다.

나눔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준비한 떡을 참석자에게 나눴다. 동문시장앞 탐라광장에서 산기전변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다양

한 체험나눔, 버스킹공연이 이루어졌다. 어린이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를 하며 즐거운 축제를 즐겼다. 점심때는 제주도의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돔배국수를 제공하였으며 삼광사 덕회봉사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고를 했다. 그 외 자장면, 떡, 커피와 음료 등을 여러 단체에서 제공하여 먹거리와 볼거리, 놀이가 어우러져 장마당과 같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했다.

‘김만덕의 위대한 탄생과 변압 채제공’에 대한 채바다(변압연구소 대표) 나눔특강이 있었다. 채제공은 만덕전을 남긴 조선의 명제상이다.

탐라광장 특설무대에는 어린이패션쇼와 버스킹 공연, 여유와설빈, 사우스카니발, 현숙 등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다.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나눔큰잔치 등에는 원희룡 제주시장, 김태석 도의회의장, 고희범 제주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양원찬, 김문자공동대표, 고승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오홍식 제주적십자사회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고병기 농협제주지역본부장 등의 내외빈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하게 만덕주간을 시작했다.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나눔은 패션이다” 나눔을 진정한 시대적 패션으로



공모전 당선작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널리 알리고, 나눔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나눔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나눔은 패션이다”라는 타이틀로 공모전이 진행되었는데 옷의 유행처럼 나눔을 유행시켜 진정한 시대적 패션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공모하였다.

많은 분들이 시, 수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했다. ‘나눔이란 뭘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인생나눔, 시간나눔, 재능나눔, 물질나눔 등 다양한 나눔에 대한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응모작품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눔을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나눔’이라는 행위가 특징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변에서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기념관에서는 매년 6월~7월 나눔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분	상장	작품명	성명	비고
일반부	대상	교실을 살리는 기적, 나눔	안지애	제주시 서광로21길
	최우수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나눔천사	김경진	고양시 일산서구
	우수	봉사	정우원	대구시 수성구
학생부	대상	내가 함께한 나눔의 시간을 돌아보며	전대진	목포덕인고등학교 1학년
	최우수	나눔의 시작이 된 나의 봉사활동	전대산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3학년
	우수	당신이 이 세상에 있기에	김솔	제주 남녕고등학교 2학년
	장려	할머니 같이 나눠 먹어요	고하늬	제주 도련초등학교 1학년
		나눔은 삶의 기본입니다.	이찬민	행정초등학교 5학년
		여름을 나누다	조선민	대전 용산고등학교 3학년
		나눔이란 무엇일까	이현지	제주 탐라중학교 1학년
		이게 얼마나	고명임	제주 청풍도서관
		김만덕공모전	김승환 김기하 김혁빈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2학년
			김보민	제주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김고은	제주 노형중학교 3학년

제2회 김만덕 주간

●2일차 김만덕객주에서 ‘투게더만덕’



가족들이 김만덕골든벨, 쌀 포대 나르기, 김만덕3행시를 지으며 가족의 우애를 나눴다.

●3일차 원도심 일대에서 ‘도르라만덕’



김만덕객주 관람객들이 산지천, 관덕정, 동문시장 등 원도심일대의 역사 탐방을 하였다.

●4일차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미션!나눔임파서블’



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팀을 나눠 탑쌓기, 김만덕골든벨, 김만덕도미노 등 미션을 수행

제2회 김만덕 주간

●5일차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사랑의 나눔교실’



기념관 관람과 영상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배우고, 쌀과자 만들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의 의미로 손거울 만들기

●6일차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휴먼드라마 영화 ‘채비’ 상영



특별한 모자가 머지않은 이별의 순간을 준비하는 이야기 ‘채비’(주연 : 고두심, 김성균)

●7일차 김만덕기념관에서 ‘나눔데이’



김만덕상수상자회, 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김만덕상 수상자홍영선 씨가 쌀을 기부하고, 제주시내 동사무소 및 복지시설에 나눴다.

시민 참여 전시회

● **김만덕주간** 문화강좌 작품전 ·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응모작

제2회 김만덕 주간
시/민/참/여/전/시/

나눔은 패션이다

1F 김만덕문화강좌 작품전
2F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응모작

전시기간
2018.10.20 - 11.30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주관 | 김만덕기념관



인기 문화강좌인 캘리그라피 수강생의 작품과 제3회 만덕문화대상에 응모한 모든 작품을 전시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 방문

글: 김상훈 김만덕기념관 관장

2018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간의 여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한 ‘김만덕정신 선양을 위한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 및 봉사단 방문사업’이 펼쳐졌다. 이번 방문사업에는 총 23명의 방문단이 대한민국과 제주, 김만덕의 일이 깃든 베트남 만덕학교 2곳,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 번푸만덕중학교를 방문했다.

22일에는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찾았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 위치한 칸호아제주초등학교에 방문단이 도착하자 조출하지만 성심성의껏 환영식을 준비해 우리를 맞이한 학교측의 진심어린 환

대에 방문단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날은 화장실 신축공사 및 학교 건물 도색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사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학교를 지어 기부하기 전에는 50명이던 학생이 학교 개교 후 350명으로 늘어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으나 학교의 능력으로 공사를 하기에 어려워 어린 학생들이 밭을 동동거리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학교 건물 벽의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어 미관에 좋지 않았었는데 이날 기공식을 통해 학교 건물도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방문단은 기공식에 이어 건물 외





벽 페인트칠 봉사활동을 하고, 소롭티미스트제주클럽(회장 박선영)이 준비한 티셔츠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강은희 이사가 마련한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성어린 마음과 소중한 기부금으로 준공 및 개교한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작년에 이어 다시 방문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특히,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을 새로 짓는 기공식을 갖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학교에서 의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배운 학생들이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베트남 발전의 큰 재목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우리 방문단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했다.

보티 탄 호영 칸호아제주초등학교 교장은 “작년에 자전거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데 이어 우리 학교의 숙원사업인 시설보수와 화장실 신축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이 지역 아이들의 가정환경은 다른 곳보다 어려운 편인데 학생들이 이제부터 더 좋아진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희망찬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환한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3일에는 변푸만덕중학교를 방문했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와는 달리 시내에 위치한 변푸만덕중학교에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마친 후, 전교생과 교직원, 비엠티시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방문단 일행이 도착하자 성대하게 환영해주었다.

이날 방문에서는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고추월 이사가 마련한 학교발전기금 5,000달러를 학교측에 전달하고, 문영자 공동대표가 준비한 티셔츠를 전교생에게 나누었다. 아울러 작년에 변푸만덕중학교 지원사업을 약속한 한양대학교 하노이동문회(회장 김홍업)가 동행해 빔프로젝터 2대와 내년 1년 동안 학생들에게 3억 베트남동(한화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사)김만덕기념사업회 문영자 공동대표는 “2012년 개교한 지 6년 만에 비엠티시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기쁘고,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해 미래에 김만덕의 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베트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응 우엔티 흥란 변푸만덕중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를 방문해주시고, 지원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지원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문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란 교장은 우리의 방문 이후, 12월에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은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컴퓨터 8대를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이번 ‘김만덕정신 선양을 위한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 및 봉사단 방문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가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의 정신이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해주기를 소망해본다.







방문단의 봉사모습은 12월 7일, 제주MBC '생방송 제주가 좋다'에서 '베트남 만덕학교를 가다'로 방영되었다. 베트남 만덕학교가 세워지기까지 과정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제주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양종훈의 포토옴니버스

작가의 고향 제주, 우리네 해녀와 히말라야, 동티모르에서 만난 맑은 영혼을 담은 사진



1월 12일 만덕기념관에서 2018년 첫 기획전시 ‘양종훈의 포토 옴니버스’ 오프닝을 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곳은 날씨임에도 국방홍보원 이봉우 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민주당제주도당 위원장 김우남 의원, 김만덕기념사업회 전 귀연 고문, 이선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셔터로 담아낸 작품인 ‘양종훈의 포토 옴니버스’는 작가의 고향 제주, 우리네 해녀를 담은 작품과 히말라야, 동티모르까지 수많은 장소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맑은 영혼을 담은 사진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옛 추억과 수려한 자연에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양종훈 교수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로 한국사진학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주한 호주대사관·대한민국 국회·동티모르 대통령 궁·서울 시립미술관 등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빛, 여행 그리고 상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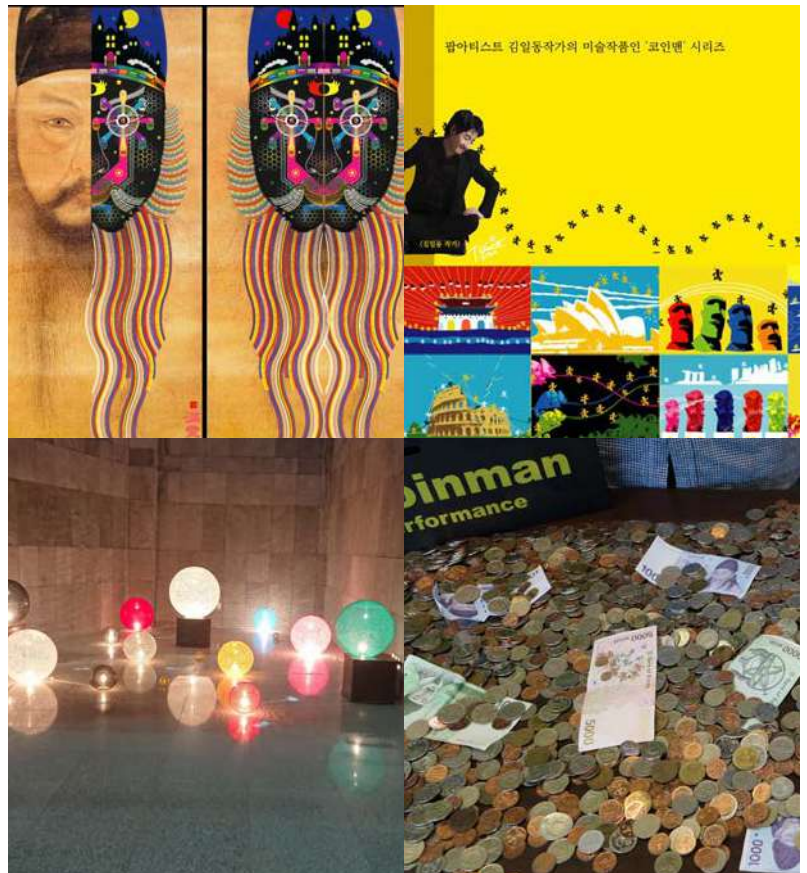
김일동작가의 코인맨시리즈와 시공상상도, 김은영작가의 쉼도우볼이 공존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빛, 여행 그리고 상상전』 전시 오프닝이 8월 9일에 있었다.

전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진과 제주특별자치도 고숙희 여성가족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오영희, 한영진, 김장식, 김장영 의원, 양영철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홍영선 김만덕상수상자, 김종만 국립제주박물관장, 양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현정숙 만덕로타리클럽 회장, 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이종례회장, 현정자 제주도재향군인회 여성회장, 박정해 공생원 원장, 김운옥 제주인성장의융합교육연구소장, 김태운 제주투데이 대표, 제주은행 한보규상무, 추사관 송영옥과장, 건강369의원 김세엽원장, 문영택 (사)질토래비 이사장, 제주시티발레단 김길리단장, 제주통일미래연구원 강덕부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과 맞닿은 김일동 작가의 기부캠페인아트 코인맨시리즈와 시공상상도, 김은영 작가의 쉼도우볼 등 영상과 체험이 공존하는 유쾌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2018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전

‘헌디 사는 세상’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나눔 작은 그림전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8년 12월 28일~2019년 2월 28일까지 김만덕기념관에서 작가들의 예술혼을 담은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나눔과 기부로 제주의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뜻깊은 전시이다. 회화 및 입체 등 50여 점이 출품되고 크기는 10호 내외로 하였다. 전시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작가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참여 작가

김산	조기섭
양민희	이승수
부상철	김성오
송미지자	이하늘
이명복	최창훈
한향선	이미선
양재열	오승용
김현숙	김강훈
고 은	변세희
강명순	박길주
김연숙	유종욱
홍진숙	김진수
김기대	오민수
강부연	김시현



골목바람, 49x35cm, 한지 아크릴, 2018



길-집으로, 10호, acrylic on canvas, 2018



김녕골목길, 60x10cm, 아크릴거울에 유화, 2016



월야청천금산, 45.5x53.0cm, 장지에 먹, 분채 2018 ↑

대화의 가치, 34.8x21.2cm, ceramics, resin on panel, 2018 ↗



대화의 가치, 73x30cm, ceramics, resin on panel, 2018 ↑



떠나보내다, 장지에 분채,은분,과슈 65x91cm 2014



말, 60x39cm, 장지에 아크릴, 2017



말 꽃 피는 나무, 27x17x35cm, 도자조각, 2013



백로와 바다, 56x11cm, 나무위에 혼합, 2017

연월(戀月), 30.0x72.7cm, acrylic on canvas, 2018 →





빛-동백나무, 40x60cm, silkscreen on paper, 2017



빛으로 가는길, 71cm x 40cm, silkscreen on paper, 2017



사랑이 꽃 피는 나무, 28x17x32cm, 도자조각, 2013



산수국 필때즈음, 15s, acrylic on canvas, 2018



시간을 보다, 65x91cm, 장지에 분채, 은분, 2014



스스로 피어나다2, 40x40cm, 한지채색, 2018



삼다도(三多圖), 45.5cm(지름), acrylic on canvas, 2018 (2)



여름밤, 60.5x45.5cm, 장지에 아크릴, 2017



오늘도 찾으러 들어간다, 53x46cm, Acrylic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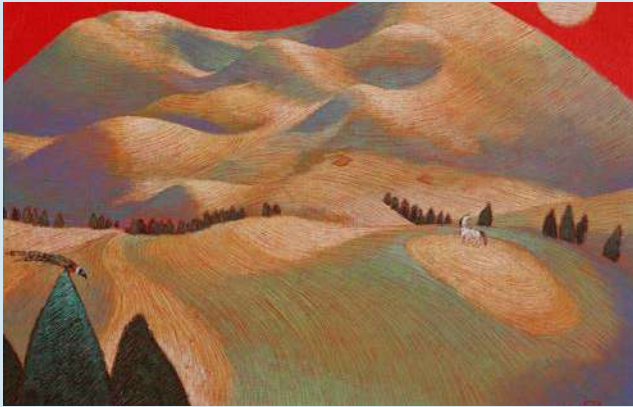




달이 있는 풍경, 57x43cm 한지에 수묵채색, 2018



외돌개C.C, 53x40.9, 한지위에 아크릴릭, 2018



이어도, 53x40.9cm, Acrylic on canvas, 2018



잠기다, 장지에 먹.채색, 40.9x53cm, 2018



제주를 품다, 30x12x28cm, 동, 현무암, 2018



제주의 숨결, 수련, 53x45cm, 한지에 유화, 2017



천만마리 반딧불이가 나를 춤추게 하다, 53x45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4



치유의 정원-봄이 오는 소리, 29x2, 종이위에 채색.



행복한풍경, 50×37, 장지에 분채, 2018



행복한풍경, 45×28, 장지에 분채, 2018



향기로운 나무1 drawing, 24.2x33.4cm, 캔버스에 유채, 2018



hide-and-seek#1, 55.5x51cm, collagrap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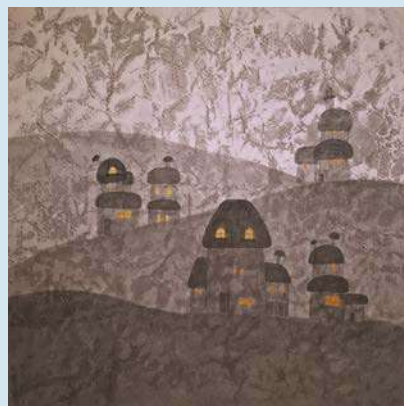
spinney, 35x35cm, cllagraph, 2016



steel origami, 40x58x60cm, stainless steel, 2016



치유-서천꽃밭, 10호, acrylic on canvas, 2018



잠들다, 50x50cm, 장지에 먹. 채색, 2018

선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나눔이란 무엇일까? 비우면 채워지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



2018년 3월 24일 기념관 만덕홀에서 기부천사 선의 특강은 한 참가자의 질문을 받으며 시작됐다. “나눔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데 나눔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한 선은 “맞습니다. 나눔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나눔을 희생으로 하면 어느 단계에서 한계에 다다릅니다. 저는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먹고 입고 놀러 다니기도 하지요. 누구에게 주는 나눔은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만 신기하게도 다시 채워집니다.” 선은 참석하신 분들이 기뻐하기도 눈물짓게 한 나눔을 통해 이룬 기적들을 소개하며 공감대를 이어갔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 세계 8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게 된 계기와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 등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만큼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선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행복특강이었다.



‘사회공헌활동이 세상을 바꾼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김만덕의 행동이 현재까지도 본받아야 할 모습



2018년 8월 18일 서경덕 교수(성신여대)의 ‘사회공헌활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기념관 만덕홀에서 특강이 있었다. 서경덕 교수는 배우 송혜교씨와 함께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의 한국어 안내서를 만들어 현지에 비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독도와 동해를 세계 유수의 매체에 광고하여 우리 국토에 대한 우호적인 세계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프로젝트로 김만덕 편을 제작(메가스터디 후원, 선 내레이션)하였고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윤동주, 안용복 등의 시리즈를 유튜브에 올려 한국인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MBC 무한도전, 배우 이영애, 김윤진과 함께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참가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함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김만덕의 행동이 현재까지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한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김만덕의 구호가 갖는 의미와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강의해 주었다.

2018 김만덕 나눔 콘서트

한해를 마무리하며 도란도란 중창단, 양하영, 잔나비 공연

2018년 12월 21일 김만덕나눔콘서트가 아트센터 모든 좌석을 가득 메운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도란도란중창단의 귀여운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양하영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밴드 잔나비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한 공연이었는데 젊은 세대에게 김만덕 정신을 알리고 호응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콘서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였고, 김만덕기념관과 KCTV제주방송이 주관하였다. 이 실험공연은 녹화되어 성탄과 연말연시에 방영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열성적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주아트센터 출입구 앞에 자리를 잡고 시간이 갈수록 대기행렬이 늘어 갔다. 오래 기다려도 지친 기색도 없이 “만덕할머니 고맙습니다. 콘서트 열어줘서...”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제주도에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많아도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청소년과 청년이 즐길 문화공간이 적고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좋아하는 가수가 찾아온 공연 시작 전부터 젊은 열기로 가득했다.



잔나비

5인조 그룹사운드 잔나비는 92년생 동갑 친구들로 구성된 밴드로 보컬 최정훈, 기타 김도형, 베이스 장경준, 드럼 윤결, 키보드 유영현이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하여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국내 록밴드의 계보를 이어가는 잔나비는 굿나잇 등 8곡을 공연하여 제주아트센터를 뜨겁게 달궜다. 김만덕 나눔 콘서트는 한 해 동안 활동을 돌아보고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사랑을 주신 제주도민께 보답하기 위한 행사이다. 가족, 친구들과 리듬에 몸을 맡기며 즐기고 노래를 통해 세대 간에 간격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공간에서 동요, 포크송, 하드 록(Hard rock) 공연을 펼치려면 기획과 선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세대를 자연스럽게 융합시켜 따뜻하게 만들고 나눔의 행복을 선물한 KCTV의 연출력이 한층 돋보인 무대였다.



도란도란 중창단

문화예술공동체인 나눌락놀이터의 도란도란 중창단은 2016년 창단하였고 2018 KCTV 제주어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음악극,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성을 신장시키고 소통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어 동요와 캐럴을 불렀고 가족과 언니 오빠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





양하영

1980년대 포크송 가수인 양하영은 듀엣 '한마음'으로 활동하며 가슴앓이, 갯바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1985년 KBS 가요대상을 수상하였고 1988년 솔로로 나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수이다. 유기견 돌보기 등 사회봉사를 하면서 유원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갯바위로 서정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불러 라이브 무대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한 중년 관객은 양하영의 오래된 데뷔앨범을 흔들며 팬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임피제 신부 한림이시들에 영면

사제서품 때 약속을 지키고 부임지 제주도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다

2018년 4월 23일 임피제(Patrick J. McGlinchey) 신부가 향년 90세로 선종하였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임피제 신부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선교사로 1954년 제주 한림성당에서 첫 사목을 시작하였다.

25세에 부임하여 64년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상처를 어루만져준 선한 목자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였다.

부임지의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로 실어온 돼지 몇 마리를 농가에 위탁해서 기르게 하여 나온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스스로 가난을 벗어나도록 돕기 시작한다. 부족함을 채워주기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고와 방법을 익혀 나가며 공동체는 성장해 나갔다.

임 신부는 2017년 2월 18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평전발간 기념식에서 “위탁 계약을 어기고 부모가 돼지를 팔아 버린 집도 여럿 있어 화났는데, 방법을 바꿔 농장에 돼지를 모아서 키우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드니 가난도 벗어나고 큰 농장으로 발

전하였다. 제주도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회고하였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 눈에도 놀랍기만 하다.”고 하며 항상 겸손한 사제의 삶을 살았다.

같이 땅을 일구고 가축을 먹이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 거동도 불편한 처지가 되었다며 고령사회가 된 제주에서 추진한 ‘무료 호스피스 병원’이 마지막 사업이 되었다.

어려운 이를 위해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산 고인의 장례 미사는 제주도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4월 27일 강우일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성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사제 서품성구(Motto)인 “주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 가고, 지키는 일은 뭐든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평생을 주님과 일궈온 이시돌목장이 내려 보이는 언덕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임피제 신부 기념사업회(상임대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대표 임문철 신부)에서는 지난 5월 28일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트 영화 ‘이시돌-제주의 기적’ 시사회를 열어 고인을 기렸다.



평전에 서명해 주는 임피제 신부



2017년 2월 임피제 신부 평전 발간 기념식





후원·기탁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18 후원 및 기탁

후원한 김만덕 사랑의 쌀 25,505kg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



1월 25일 회의차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념관을 방문, 나눔쌀 기부금을 전달하고 '양종훈의 포토옴니버스'를 관람하였다.



1월 9일 서울시 강북구의회 한동진 부의장과 의원 일행 방문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정복금 의장과 의원일행 방문



1월 22일 뮤지컬 <만덕> 공연팀 방문 및 김만덕 묘탑 참배. 창작뮤지컬 <만덕>은 '김만덕'의 일대기와 사랑을 감동적으로 다룬다.



3월 27일 포천시 영중면 이장협의회(거사 1리장 윤옥순 외)와 영중농협(조합장 안남근), 영중농협영농협의회장(회장 안선재) 등 24명 방문

김만덕 사랑의 쌀을 후원해 주신 분

NH농협은행 남문지점	김은지, 김예지	보은선	이종훈, 최아정
020-길친구	김익현	본메디 이승희	이현준
강건우, 강규리	김재성, 김재연	빛나들이	이흥만
강경호	김재영	사대부고	임민희
강동인 가족	김정숙 외 3인	사동초등학교	임정연, 임해준
강명순	김정옥	상명대 박사과정	임피제기념사업회
강명희	김중환	새솔어린이집	임화자, 최현숙
강북구의회	김주환 가족	서귀포문화원-문화대학4기	장길남
강서연	김진희, 배상인	서울교감연수단	정세균 국회의장
강성목	김혜덕	소롭티미스트	정순선
강순희	김혜미(서귀포)	소비자중앙회	제주 일본총영사
강영희	김흥기	손영균	제주만덕로타리클럽
강우현	노연택, 손희식	송연희 가족	제주문화원
강월숙	농협	승혜수산영어	제주은행
강정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아름다운동행 수놓음	제주일고 14회
강혜선, 한정자	뉴제주라이온스클럽	양명희	제주테크노파크
건입동부녀회	덕산문화재단	양승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동린	도란공방회원	양은우	제주mbc 김지은피디 외
고추월	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현, 양태열	조광섭 가족
고흥군의회	로스쿨 김은정	엠비에스(주)	조미녀, 고윤영
공동모금회	류경화	여성단체협의회	조소현 가족
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만덕상수상자	연세대 화학과 기회	조영숙
권건옥	무기명	오리온재단	진춘자 회장
금산간디중 청주친구들	문기덕	오진우	참사랑요양원
길친구	문영찬	우리방재	채정희
김명화	미사(주)	유상용	최상훈, 김종필
김미경	박금자 안젤라	윤은애	최완규, 이철구
김복애	박선영	윤진호정형외과	최정석 가족
김상돈	박성희	이경기장빈	최현숙
김서진, 김우진, 김라진	박숙자, 강민재	이경민, 이민우	티미스트서귀
김선옥	박양희	이금주, 최일선	티미스트제주
김선현	박영준가족들	이미혜	한국공항공사
김성애	박행순	이상민맘정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성주 등 3명	박행애	이상육 의원	한독카리스
김순례의원	베트남방문단	이수선 의원	한소리합창단
김승웅	변우식	이은원, 황일	해설사일동
김아형, 김서형, 김지형	보우와 손님들	이정화	



4월 4일 오리온재단 관계자들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



7월 15일 '제주 4·3 70주년 청년캠프'에 참석한 캄보디아 비네이 갓 (Viney Nget) 신부, 성가소비녀회 이 그레이스 수녀, 청년 4명 방문.



7월 1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사랑의 나눔쌀 900kg 기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조웅팀장에게 감사패 전달

CMS 후원하시는 분

오명희	이일순	장정은	한보규
문미현	이유경	홍경여	변철환
박정환	허순자	박선영	홍혜경
안성옥	김은희	강윤희	김세영
송연희	조윤경	이은아	김정수
김형미	김복자	김수정	전학봉
송승환	홍성주	김정미	김창현
전귀연	정명희	고은재	김현주
이금실	이향숙	고애연	양수임
한인자	김길리	김순미	진춘자
성경숙	현성우	박순희	곽 민
박미경	박금난	이종례	김도훈
	송순이	김미정	김상훈



7월 13일 김만덕기념관과 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회장 이종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 실천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소롭티미스트는 현재 129개국에서 8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롭티미스트 제주지부 박선영 DD, 이종례 회장과 일행이 참석했다.

CMS후원은 계좌에서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념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064)759-6096



7월 18일 제주시와 농협 제주시지역본부, 강원도와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철원 오대쌀과 제주 하우스 감귤을 기부



8월 3일 제주은행 영업부와 리스크관리부 임직원들이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 후원금 기부



8월 16일 제주일고 14회 동창회 김홍배회장, 김동훈총무, 변현철, 김우탁 회원 등이 사랑의 쌀 200kg 기탁



8월 9일-9월 30일 기념관 특별기획전 '빛, 여행 그리고 상상'展 코인맨에 모은 기부금을 김일동 작가가 전달



10월 30일 농협의 소개로 강원도 홍천군 여협회장단 방문하여 김만덕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해 주었다.



제39회 김만덕상 수상자인 강영희(71, 봉사부문)와 좌옥화(84, 경제인부문)씨가 각각 상금 500만 원 전액을 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11월 2일, 대정장애인협회에 김만덕 사랑의 쌀 700kg을 기탁했다. 이날 산방식당에서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와 같이 했는데 산방식당 사장님도 기부도 하시며, 매년 식사도 대접한다.



11월 16일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기념관을 방문했다. 베트남 만덕 학교 건립 및 지원사업 소식을 듣고 기념관을 찾았다. 앞으로 제주지방 경찰청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12월 6일 이배웅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동소서원 회원들이 기념관을 방문하고 기부금도 기탁했다. 이배웅 원장은 김만덕을 열심히 알고 있다.



12월 18일 JMP기획이 운영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진로토크콘서트'에 대정중학교 3학년 약 10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가수 주넌드 공연, 여러 분야의 멘토들과 함께 진로 토크를 하였다.



1월 3일 '찾아가는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했다.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사랑의 나눔쌀 200kg을 전달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식품, 생필품을 제공하는 편의점 형태의 복지이용시설이다.



1월 18일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전달식을 갖고 소망요양원, 남제주요양원, 위미에덴요양원, 정효원, 기로회요양원, 삼양노인종합센터에 1,100kg을 기탁했다.



1월 19일 찾아가는 사랑의 쌀 나눔 두 번째 행사로 기념사업회 문영자 공동대표와 김기량성당을 찾아 빈첸시오회에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300kg을 기탁했다.



1월 20일 찾아가는 사랑의 쌀 나눔 세 번째 행사로 정효원 김수영 원장 '남국선원'을 찾고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300kg'을 전달했다. 한라산 돈내코의 남국선원은 1977년 해국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스님들이 밤낮 용맹정진하며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찰로 유명하다.

김만덕 사랑의 쌀 배부처 및 수량

배부처	수량(kg)
건입동주민센터	200
건입동새마을부녀회	50
김기량성당	300
김만덕주간 나눔	362
남국선원	300
대정읍	700
독거노인	260
독거노인방문지원	2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500
만덕로타리클럽	202
벤엘, 정효원	3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관3주년)	1,000
생명의샘	200
서귀포불우이웃	10
서귀포시	4,000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300
서울지역 기념관 홍보용	30
서호요양원	200
송죽원 1차	200
송죽원 2차	300
순복음복지관 1차	250
순복음복지관 2차	200
쌀전달 제주양로원 외	1,000
요양원 6개소	1,200
용담동독거노인20가구 배분(원스톱지원센터)	200
원스톱지원센터(삼양, 도련, 화북20가구)	200
음식박람회	200
이도2동주민센터 1차	300
이도2동독거노인	100
이도2동주민센터 2차	200
이시돌의원및요양원	500
이주민센터	300
자원봉사센터	200
자원봉사센터부설독거노인지원센터	300
적십자사제주지사(개관3주년)	1,200
정효원 등 6개소 요양원	1100
정효원, 제주양로원, 주사랑요양원	600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300
제주시	6,000
제주신보 마라톤 불우이웃 돕기	200
제주의소리	300
중앙성당빈첸시오회	300
창암재활원	300
푸드마켓	200
한백선교회, 예담요양원, 무지개마을	300
해병대봉사단독거노인	20
합계	25,404



2월 9일 김만덕기념관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삼양동, 화북동 일대의 독거 어르신 가정 20세대를 찾아 사랑의 쌀과 생수(삼다수)를 지원하였다. 유난히 추운 겨울,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월 13일 중앙성당 빈첸시오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사랑의 나눔쌀 300kg을 전달했다.



2월13일 오후에는 만덕로타리클럽,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용담동 가정 20곳을 방문해 사랑의 쌀과 생수, 라면을 지원했다.



2월13일 추운 날씨에도 봉사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사람이 그리운 어르신과 헤어짐이 더 어려웠다.



3월 21일 제주도내 노인복지 시설 6곳(경천전문요양원, 자미성, 전원요양원, 제일요양원, 예천전문요양원, 평화양로원)에 김만덕 나눔쌀 1,200kg을, 이도2동 주민센터에 200kg을 나누었다.



전달된 쌀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영양 및 급식관리,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개별세대에 지원된다.



4월 4일 동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경훈 신부)에 사랑의 쌀 500kg을 기탁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한 주민들의 복지문화의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꿈을,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복지문화를, 성인들에게는 나눔의 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27일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행정복지센터,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입동 독거노인을 위한 인정이 넘치는 만덕마을 만들기 행사에서 250kg을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나눔쌀 300kg을 전달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을 독거노인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전달하였다.



추석을 맞이해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나눔쌀 200kg와 라면 10박스를 전달하였다.



추석을 맞이해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나눔쌀 300kg을 전달하였다.



9월 14일 추석을 맞이해 용담2동 주민센터에 라면 50박스를 전달하여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9월 14일 추석을 맞이해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쌀 300kg을 기탁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관내 어르신 급식시설 등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사용된다.



9월 21일 제주시 독거노인세대에 사랑의 나눔쌀 260kg을 기탁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기증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9월 21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랑의 나눔쌀 300kg을 기탁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12월 5일, 11일 순복음중앙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 200kg을 배분했다. 사회복지법인 섬김의 집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주민행사, 교육문화, 자활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12월 5일, 11일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에 사랑의 쌀을 200kg 배분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정자현은 장애인들의 기초생활능력을 높여 스스로 재할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할을 돕고 있다.

‘만덕학교’에 초대합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유치원, 초중고생, 청년과 성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기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http://www.mandukmuseum.or.kr>)와 카카오톡 ‘김만덕기념관’과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각종 소식을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후원 문의는 김만덕기념관 ☎064-759-6093



‘나눔’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입니다.
<http://www.mandukmuseum.or.kr/>

3층 상설전시실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였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도전-나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

2층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3호

은광연세 제3호의 커버스토리는 '정조의 제주도 구휼'입니다. 김만덕이 직접 남긴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 국가 공식문서와 많은 선비들의 문집에도 김만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민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긴 예는 드문 일입니다.

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한 제주도의 대기근은 국가적인 재난이었으며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제주도 구휼 기사는 '원행음모정리의궤'의 정조 능행 8일간 제주도의 긴박했던 상황이 속기록처럼 남아있습니다. '장부만 있고 빈 창고'의 현실이 드러날까 구휼곡을 줄일 것을 주장한 대신들, 암행어사를 통해 이미 상황 파악한 정조는 원행비용 10만 냥에서 1만 냥을 내서 곡식을 사서 제주도로 급히 배를 띄우라 명합니다. 만덕은 미리 곡식을 사와 관덕정 앞에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을미정리곡'이 도착하더라도 이미 도민이 다 죽어 있는 참사를 극적으로 면했습니다. 생명의 쌀을 실은 수레를 정조는 앞에서 끌고 만덕이 뒤에서 밀어 수많은 제주도민을 살려낸 것입니다. 수원화성의 '신흥루 사미도'에 쌀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혜경궁 홍씨 회갑연'에 배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는 전국의 독자들에게 김만덕의 삶인 도전정신과 나눔정신을 널리 알리고 성숙한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선행 사례가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또는 <http://www.mandukmuseum.or.kr>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 올려 주시면 소식지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눔실천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185-2939-3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제주은행 01-01-336808 (사)김만덕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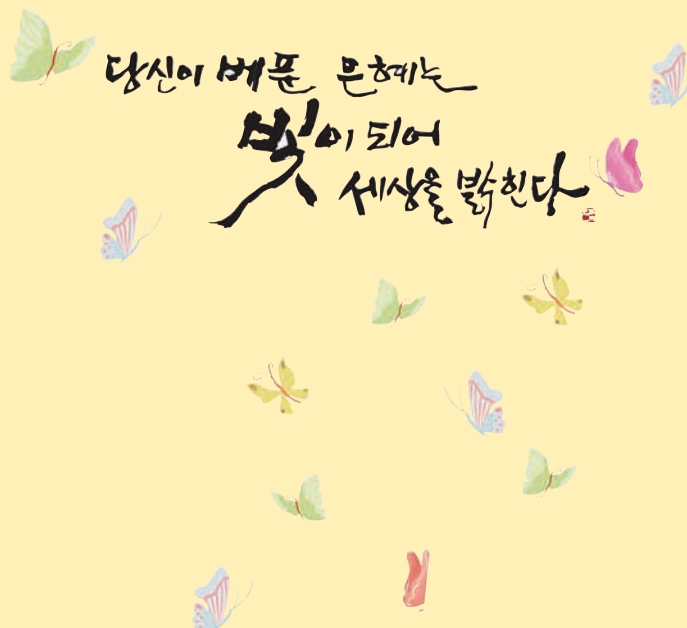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3호

발행 (사)김만덕 기념사업회
발행인 상임대표 고두심, 공동대표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발행일 2018. 12. 26
편집인 김상훈(김만덕기념관 관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진행 광민, 김창현, 전학봉, 김세영, 양수임
사진 신익재, 전학봉, 양수임 외
교정 김현주, 김옥선
제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2018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2019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2019 기해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김만덕기념관 임직원 일동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